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골 아니 계시면 이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가 갚사오리." 승강 정철의 '훈민가' 중 한 대목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부모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리 만큼 큰데 자식은 부모의 은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자식 낳아 부모될 때 그 마음 헤아릴까. 설사 어쭙잖게 헤아려 갚으려해도 그 때는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편집자 주〉

효도보다 큰 善 없네

부모는 좋은 복전(福田)이다. 〈성선천자소문경〉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할 일은 살림살이를 잘 할 것, 일찍 일어나 제때에 식사를 드시게 하는 것,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 언제나 부모의 큰 은혜를 잊지 않는것, 병환이 나면 '곧 의사를 청해 치료해 드리는 것이다. 〈육방예경〉

부모가 세세생생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시므로, 무겁에 정진하여 이제 부처가 된 것은 다 부모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가히 효순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별경〉

음식과 보배는 아직 능히 부모의 은혜를 갚음에 족하지 못하나, 인도하여 정법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양친께 공양하는 것이라 한다. 〈불사의광경〉

부모를 효도로 섬기는데서 오는 과보는 일생보처의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증일아함경〉

만약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혹 부모를 죽이는데까지 이른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록 나오려 해도 나올 때가 없을 것이다. 〈지장경〉

자식은 마땅히 다섯 가지 것으로 부모를 바로 공경하고 바로 봉양해야 한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아 오직 보답하며, 가사를 오직 닦으며, 부채는 오직 갚으며, 분부는 오직 따르며, 섬기되 오직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함이 그것이다. 〈선생자경〉

무릇 사람이 천지의 귀신을 섬긴다 해도 그 부모에 효도함만 못하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 〈사십이장경〉

늙은 부모를 잘 섬기면 의당 내세에는 제석천의 궁전에 살게 된다. 그리하여 무수한 환희원(歡喜園)이 늘 시편을 에워싼다. 〈대승일자왕소문경〉

선의 최상은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악의 최상은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 〈인욕경〉

'깨달음의 사회화' 시민운동 승화

조계종 15일 '후원의 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시민운동차원으로 승화시키기로 하고 오는 15일 롯데호텔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현승종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강영훈 대한적십자사총재등 정·재계 인사와 사부대중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월주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새로운 실천방향과 사업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총무원이 시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6월경 추진본부를 결성, 실천운동 시민사회운동 지원등 구체적 실천방향을 정해 범국민 운동차원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후원의 밤은 새롭게 전개되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시작하는 행사로 구체적 운동 방향이 영상다큐물로 소개되고 각분야에서 이운동을 실천하는 이웃 108명을 특별 초청, 대내외에 선포한다. 〈관련기사 3면〉

본말사 포교규정 논의 '법회와 설법' 좌담회서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1일 〈법회와 설법〉 창간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포교활성화 방안' 주제의 좌담회를 계기로 '본말사 포교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휴스님(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현응스님(총무원 기획실장) 지광스님(삼선포교원 주지) 심익섭교수(동국대 행정학과)등 이날 참석자들은 본말사의 구체적인 포교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포교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포교국장 임기보장, 본사예산 15%의 포교예산 책정, 교구본사 상임포교사제도 등은 상위법과의 상충, 현실성의 미비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녘 비추는 자비광명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2일 서부전선 해군 청룡부대 애기봉에서 호국광명등탑을 점등했다. 이날 총무원장 월주스님, 김명환 해병대사장단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 부처님 오신날을 북한 동포에게 알리고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애기봉=고영배 기자〉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최종결정 '초읽기'

교계 '문체부案' 지지

'건천-화천 우회' 경주시민단체협도 환영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과 관련 문체부와 건교부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경주외곽 건천-화천 노선을 새로운 노선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은 그동안 경주도심통과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를 비롯한 문화계 학계에서 제안해온 경주도심과 남산 15km밖 노선과 근접한 것으로 백지화추진위원회는 문체부안에 대해 즉각 성명을 발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의 새노선안은 경산시 압량에서 경주 건천을 화천리, 내남면 등 경주외곽지역 52.5Km를 통과토록 한 것으로, 백지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노선과 가장 가깝다. 이 안은 고도 경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백지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문화계 학계의 입장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주시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다.

이 안은 지난 4월 26일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이 김영삼대통령에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주노선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를 29일부터 현지에 파견,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5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한 직후에 김영수 문체부장관이 청와대에 새노선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체부의 새노선안에는 △경주시 일원을 절대보존구역 상대보존구역 제한개발구역 자유구역 개발유도구역 등 5개권역으로 지정한 뒤, 고지도와 자료등에 근거한 발굴작업을 통해 경주를 복원하며 △5백여만평에 이르는 건천지역에 10만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경주를 건설하고 △경주 도심(왕경지구)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신도시이주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의 새노선안 제시에 대해 백지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화추진위는 성명에서 "문체부의 수정안이 비록 건천-화천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에 일말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나 기존 형산강-남산노선의 건교부안에 비해 한층 타당성있는 계획으로 경주통과 백지화에 대한 국민의 열원과 기대에 부응한다"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여의도 '불교문화대전' 열린다 19면
5월 청소년 문화 큰잔치 17면
동국대 개교 90년 특집 10 · 11면
사찰풍수는 허화중생 방편 14면

전자게시판 무단피아 마랜더호 722-4162-4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현대불교신문은 중·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대생교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고교에 보급합니다.

중·고교에 대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도후스님 ◇김재일씨 ◇박찬수씨 ◇김대곤씨

△도후 신흥사 주지: (2구좌) △혜광 경찰병원경승: (3구좌)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 (3구좌) △전성훈: 영동중 용산고 중동고 김천고 경기여고 서울과학고(6구좌) △박찬갑: (1구좌) △엽재성: (1구좌) △배관성: 숙명여중 아산 영인중(2구좌) △한길수: 인천 동산중(1구좌) △홍영순: 과천고(1구좌) △서홍구 부곡여중교장: 부곡여중(1구좌) △김창오: 해운대고(1구좌) △백낙우 장림여중교장: 장림여중(2구좌) △정병태: (1구좌) △김대곤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 (1구좌)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광주상고(1구좌) 〈5월 2일 현재 총183구좌〉

지정학교등 100곳 1차 전달

"민족얼 고취" 동참 잇달아

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cm를 높이 55cm 폭 35cm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출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 후에 반드시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설

민족의 영원한 등불되라

—동국대 개교 90주년에 부쳐

5월8일로 종립 동국대학교가 마침내 개교 90주년을 맞이한다. 개화의 물결이 한창 밀려들던 1906년 동국대는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신세대 선진교육의 도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찰의 정재를 염출하여 명진학교로 개교되었다.

그동안 일제의 점령기와 한국동란의 난국을 겪으면서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전통민족문화와 선진 과학의 융화를 이루며 순수한 민족사학으로 성장했다.

90년의 성상을 지나는 동안 10만여 동문이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신념과 정의로 인성을 다듬고 학문을 연마하였고, 나아가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선사와 같은 민족 지도자를 비롯한 문필가, 정치인, 경제인, 산업일꾼들이 배출되어 국가발전에 큰 장을 열기도 하였다.

동국대학의 전통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어 1600여년을 지내오는 동안 민족정기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대학의 발전이 불교의 발전임과 동시에 민족정신의 앙양이라는 점을 짚어볼 때,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물론 2천만 불교도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하나같이 동국대 발전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동국대학교는 서울과 경주의 양 캠퍼스에 인문·사회·자연·예능·한의·양의와 부속병원을 갖추고 비약적인 발전의 도상에 서있다. 지난 95년도에는 과격적인 교육개혁을 시도하여 현재 실행단계에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국대학의 교육계획안은 신교육계획에 획기적인 대학교육의 전환점을 제시하여 한국교육발전에 기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측에서 발표한 개교 100주년을 앞둔 계획안을 보면 불교의 자비관을 바탕으로 정신문화는 물론 생명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는 유전과학과 환경공학 첨단 컴퓨터, 영상미디어 방면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산학협동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앞서 이끌어가는 학문분야를 중점 양성하며, 자연과학 캠퍼스를 건설하여 첨단 연구시설과 쾌적한 학문센터를 건설 중에 있다. 또, 수도권에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자비보시의 사상으로 인간의 병고를 치료하는 복지사업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에도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영탑사업도 시도하고 있다.

한동안 침체의 기간을 보내던 동국대학교가 종립대학으로 신심과 기도, 학덕과 용기로써 힘차게 개혁과 발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교계는 물론 타 교육계에서도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다. 민족종교인 불교의 재단이다. 교수와 직원은 학교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하여, 학문 연구와 교수 및 학교 발전에 적극적인 주인의식으로 대처한다면 우수한 영재교육의 효과는 백분 발휘될 것이다.

한국의 대학 가운데 세계화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학으로 민족 전통사상에 입각한 교육의 산실인 동국대학교가 당연히 주목받을 것이다.

차제에 설립자인 조계종단과 2천만 불교도는 동국대학의 발전에 환희심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학의 찬란한 빛이 민족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 악업의 세계에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산실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사찰防災

최근 수행도량인 법당이 불타고 성보가 도난당하는등 사찰마다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목사가 법당내의 불상과 탱화를 훼손하는등 이교도들의 훼불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의 재난에 대한 대비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찰의 재난방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30톤 물탱크·방염벽등 보호시설 완비

지난 4월 22일 방화사건 피해 최소화

화계사 재난예방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에 대한 방화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화계사가 30톤 분량의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재난 대비에 적극 나섰다.

화계사는 1618년(광해군10) 전소되고, 1974년 대웅전 우측 관음전이 화재로 손실되는 등 화재피해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서울 삼성암과 본원정사에 이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대웅전과 종각 문이 손실됐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는 법당(국제선원) 벽의 방염처리 덕분으로 전소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또 화계사는 재난에 대비한 시설들을 오래전부터 구비했다. 94년에는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때 미리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막았던 경험도 있다. 사소한 곳에 신경을 쓰는게 아니냐는 만류와 빈축을 사기도 한 최근의 상황으로 미뤄볼때 화계사의 이같은 재난 사전예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불사를 위한 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당 벽의 방염처리, 물탱크 설치 외에도 화계사는 수화기의 보강, 소방교육, 도로의 확장(소방도로), 개천에 가로등 설치, 경보기 설치 등 화재뿐만 아니라 초파일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화계사는 청원경찰 24명과 사중이 2인1조로 구성, 밤 10시부터 사시예불이 마치는 새벽 5시까지 야근 순찰근무를 서고 있는등 환경의 훼손방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스프링쿨러·소화기·내진설계등 갖춰

문화재 보호차원 지진대비 훈련 실시

日사찰 모범사례

일본사찰은 우리의 경우처럼 목조건축물이 많아 화재와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불이나면 즉시 예방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설치와 방염제 시설, 사찰내 소방대구성, 훈련 등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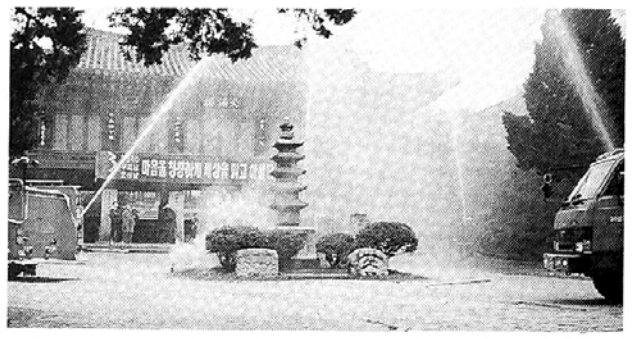
이와함께 소화기 배치와 소화전 시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찰에서 갖추고 있으며 규모가 큰 사찰이나 문화재 사찰에서는 고가품 소화장비인 할로겐 소화설비까지도 구비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사찰마다 화재 및 재난대비가 철저한 것은 지역적으로 지진 등의 재난이 많은 것에 기인하지만 국민들의 문화재 보호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국민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 참배객은 물론 관광객은 사찰 출입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으며 비상연락 체제와 소방검사가 철저하다.

사찰 소방대의 경우 주지스님이 소방대장을 맡고 사중스님들이 각 건물과 소방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지역인만큼 재난구호 활동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찰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소방대비 훈련과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과 함께 화재 및 지진대비에 대한 강의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사찰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불사를 시작할 때부터 소방과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시설과 내진설계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화재보험 등도 가입해둬 만약을 대비하고 있다.



◇조계종 제 2교구본사 용주사는 지난 1일 상반기 중요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대피, 중요문화재 반출 및 인명구조 훈련이 실시됐다.

사찰 화재·도난 「무방비」

거의 목조건물 소방시설 절실

성보도난 대책·보험가입 필요

최근 사찰들의 잇단 화재 등 해마다 증가하는 방화와 도난 사건으로 인해 예방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찰의 경우 일단 화재와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해 말 그대로 치명적이다. 특히 수천년동안 이어온 문화재급의 재산이 한순간에 전소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위해 사찰은 화재와 도난사건을 대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호스, 노즐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등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도 소방시설로서는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시설, 스프링쿨러 등이 있고 자체적인 방범 소방반을 편성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훈련을 생활화 해야 한다.

성보도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지방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도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구책이 요구된다. 성보문화재의 경우 자체 유물전시관을 마련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지역별로 본사급 사찰에 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CCTV 설치도 도난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찰의 손실 폭을 최소화하고 수행포교의 도량으로서 빠른시일내에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의 가입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이는 사찰이 대부분 목조건물이고 화재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기피하고 사찰측도 장기보험(5년 만기시)의 경우 적어도 매월 70여만원의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법규상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3백평이상일 경우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고 6백평이상일때 자동화재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뿐 소규모의 사찰은 해당 법규가 없어 자체적인 소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 도난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종말론이 다시 오려나

목어

신문보기가 무섭다. 세상이 무서워서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하루도 쉬지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 사망극'을 벌였을까. 그것도 우연히 만난 사람을 꾀어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으니 그게 어디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인가.

고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의 주부를 살해하고 통장에서 2천여만원을 인출한 30대 남자가 잡혔다. 거액의 대출커미션 혐의로 은행장이 구속됐다. 15대 국회 무소속 당선자 영입작업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눈가려 보지 않고 귀막아 듣고싶지 않은 비리·비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 나라안이 온통 썩고 병든 느낌이다. 그래서

병든사회 고치는 '약'

부처님께서는 인간세상을 화택(火宅)이라고 하셨나보다. 그러나 날로 거세지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바라보면 그저 참담하기만 하다. 인간마을의 황폐화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화택의 불을 끄고, 병들어가는 중생계를 구원하기 위해 8만4천 진리의 법을 펴셨다. 그 법이야말로 이 땅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요 명약이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두고도 병은 점점 깊어가고 환부는 넓어지고 있으니 누구를 향해 무슨 말을 해야할지. '깨달음의 사회화' '상구보리·하화중생'이란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사홍서원을 되풀이 다짐하는 우리 불자들은 해야할 일이 있다. 약을 알고 있으면서 환자에게 일러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다. 부처님법을 널리 펴는 일이야말로 자연스런 '청정사회' 운동이다. 부처님께서 칠보로 국토를 장엄하기 보다 법을 펴는 공덕이 크다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청정사회·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부처님 오신달 5월에 불자들은 의무적으로 법을 전하자. 만화·동화·교리서, 소설, 법어집, 비디오·오디오테잎 등 부처님 말씀을 선물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내 식구부터 시작하여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면 우리 사회는 5월의 신록처럼 푸르러질 수 있으리라.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친구 사귀는 법

나쁜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이치는 따르지 말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나쁜 친구는 가까이 하면 어느 결에 나쁜버릇이 들어 깊이 어둔속에 갇히게 되느니라.

〈증일아함경〉

협찬 미술표구 일광정사
대표 여규평
TEL.(02)733-2325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귀의 삼보하옵고.
손끝에 물들은 분홍빛 연잎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이 목전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민적 축제 행사에 여념없으신 사부대중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가람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 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0년 5월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 동기와의 장점 및 특성

1. 반 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눈과 한파로 인한 동파가 발생하지 않고 풍우로 인한 흙의 흘러내림 (지붕의 이물질, 잡초의 뿌리, 이끼등)으로 인한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목재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3. 운반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평당 기와의 중량이 45kg으로 가볍고 암기와 숫기와는 30장씩(1평당 소요량) BOX로 포장되어 운반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색상은 적등색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주게 됩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내수 합판을 사용하여 지붕에 덧집을 짓고 아스팔트 펠트(25kg이상)를 깔은후 동기와를 조립하여 시공하며 신축의 경우 서까래위에 송판(이다)을 깔은후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을 한후 내수합판으로 덧집을 짓고 동기와를 조립 시공한다.

가람 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 전부분 공정을 대리점 하청없이 제작, 설계,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02)720-512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 (02) 720 - 5121

'나와 이웃은 하나' 뿌리 내리기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하 깨·사)이 시민운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오는 15일 개최하는 '깨달음의 사회화 후원의 밤' 행사에서 깨·사운동을 새로운 불교운동을 이끌어 갈 강력한 실천주체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문사부는 이와관련 "깨·사를 본격적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위해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며 "6월경 조직체계를 정비해 본격가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깨달음의 사회화' 프로그램

- 실천운동—승가공동체 체험·일일출가
- 사회운동—법률정책연구·공청회·의정감시
- 지원활동—모범사례발굴·자원봉사자 교육

'깨달음의 사회화' 시민운동 전환 의미

구호성 캠페인 여론에 사업영역 확대
불교사상·문화바탕 신행혁신 재점검

이처럼 조계종이 깨·사운동을 시민운동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성금지원 이외에는 구호형태의 캠페인성운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동의 방향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조계종이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깨·사운동은 △한국불교가 민족, 세계사적 발전에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역할담당 △사회정의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교계 역량동원 △불교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한 사회발전 제시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신행 혁신을 꾀하는데 있다. 이를위해 총무원은 지역, 사찰과 신행조직을 총망라하는 깨·사운동 추진본부를 결성, 3단계 발전계획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종단과 별개로 자생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추진본부는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실천운동-승가공동체 체험, 일일출가 △시민사회운동-공익소송, 공청회 및 연구활동, 법률 및 정책활동, 사회예산 증액운동, 예결산 및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모니터링 △지원활동-모범사례 발굴, 활동자금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조직화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통일, 환경등 중요한 사업은 전문화시켜 독자적 사업으로 전개할 전망이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라는 주제의 깨·사운동은 지난해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신년법어에서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진리의 몸을 얻는다"는 교시에 따라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성도절을 기해 깨·사운동의 전개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월주스님은 △사회는 하나, 우리는 하나임을 깨달아 대동세상 이뤄내자 △민족은 하나, 민족이 하나임을 깨달아 통일조국 앞당기자 △자연은 하나,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 푸른정토 가꿔가자 △세계는 하나,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인류평화 기여하자는 4대실천강령을 채택, 직접 전국의 사찰을 돌며 깨·사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을 벌이는등 총단차원의 불교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모금된 깨·사성금은 총 4억여원에 이르고 이가운데 2억여원을 일본 고베지역 지진피해지원, 대구가스폭발사고지원, 사할린 영구귀국노인 자립안정기금, 베트남 한인 2세지원등 총 57회에 걸쳐 지원사업을 펼쳤다.

깨·사운동은 지난해 중앙승가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등 불자들의 높은 호응속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깨·사운동을 이끄는 주체가 불명확하고 단순히 지원사업에만 머무르자 새로운 방향모색이 요구됐던 것이다.

이처럼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깨·사운동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교계의 시민운동까지 종단의 관장하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흔 경불련위원장은 "시민운동은 자발성, 창의성, 자원봉사에 기초하는 것으로 종단이 직접 시민운동차원의 불교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사찰, 신도조직이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노선 현지 공동답사…이달 말께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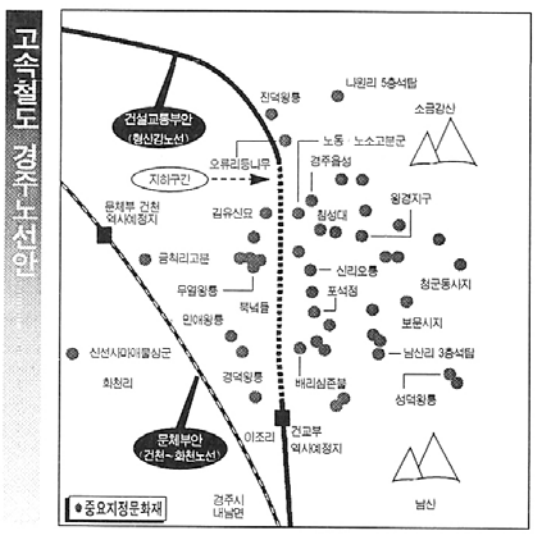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백지화추진위는 또 정부에 대해 "기존 건교부의 경주 도심과 남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완전백지화하고 문화체육부의 새노선안을 채택할 것"과 경주를 비롯한 고도(古都) 보존정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경주환정역사사수 범시민단체협의회도 지난 2일 기존의 건교부안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 시민단체협 재무부장 김도경씨는 "시민단체협은 경주지역을 통과하고 .역사(驛舍)가 들어선다면 어느 노선이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호 〈경주발전〉에 시민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기고문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문화재관련 학계도 경주통과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대구 계명대에서 열린 영남고고학회 제5회 학술발표회에서 이희준 경북대교수는 '발굴유적의 보존문제'를 통해 "경주는 고분이나 시가지의 땅을 파서 나오는 문화재는 물론 경주와 주변일대가 유례없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이루는 곳"이라며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나 역사건설은 문화재뿐아니라 역사·문화환경 파괴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노선의 변경불가가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기존노선의 지하화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2일까지 경주현지조사를 벌였던 문체부 건교부 공동조사단 현지답사 보고서를 작성해 총리실로 각각 제출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월말까지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30일에 이어 2일 공동조사단 간담회를 갖고 문화재보호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노선조정에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동조사단에는 문체부에서 추천한 한병삼 전국립중앙박물관장, 김석철 아키반대표, 임성빈 명지대 공과대학장, 김종철 계명대박물관장, 이선복 서울대교수와 건교부에서 추천한 장윤익 경주대총장, 최정필 세종대인문대학장, 최용한 경주남산보존회장, 김현식 국토개발연구원 도시연구실장, 차동득 대구시 교통개발기획단장이, 총리실에서는 황수영전동국대총장을 단장으로 지명했으며, 문체부 건교부 실무자 3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동대문운동장서 종각까지"

19일 연등축제 거리 레이져쇼등 행사 풍성

오는 19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보신각앞까지 거리가 연등축제거리로 지정되고 다양한 봉축행사가 펼쳐진다.

봉축기획단(단장 법타)은 지난 1일 △국민적 축제의 장 △불교문화 홍보 △고유전통인 연등행사 계승 △월드컵개최 기원을 골자로 하는 연등축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19일 오후 4시, 동대문축구장에서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종묘공원에서 의장대 시범과 불교방송 공개방송이 동시에 열리는 연등축제는 예년과 달리 법요식, 연등행렬을 단축하고 새롭게 연등축제 회향식을 마련한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회향식은 보신각앞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승무, 풍물패 놀이한마당, 불교영상물 상영, 레이져 쇼, 연예인 공연등이 펼쳐지고 월드컵 유치를 기원하는 촛불꽃이 행사가 열린다. 또한 탑골공원에서는 연등을 든 시민이 참석하는 강강술래가 탑돌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획단은 이날 제일은행앞에 연등만들기 시연장을 마련해 다양한 봉축 등을 제작 시연하고 시민과 함께 등을 만들어 이웃에 나누어 준다.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대문운동장, 보신각, 제일은행앞에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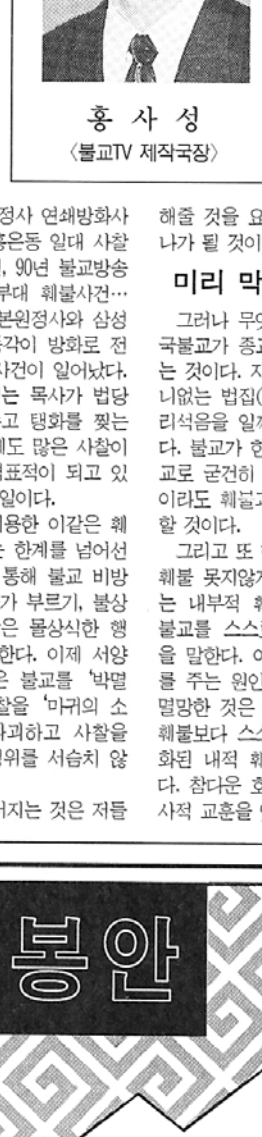
이교도들의 범죄적 훼불

인도의 불교성지를 순례한 사람이 느끼는 감회는 감동이 아니라 쓸쓸함이다.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설법과 열반을 기념하는 4대성지 어디를 가보아도 쓸쓸한 폐허 뿐이다. 최초의 절 죽림정사, 부처님이 24회나 여름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세계 최대의 불교대학이던 날나다 사원도 잡초가 무성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세기적 편견의 재등장

인도의 불교유적지가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는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인도를 침입했던 이슬람의 무자비하고 철저한 파불(破佛)때문이다. '코란이 아니면 칼'이라는 이슬람의 오만과 편견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스런 종교인 불교를 무참하게 무화(無化)시키고만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알라신의 이름으로 불교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를 살해한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종교의 제일 덕목인 자비와 관용을 저버렸다. 또 카스트제도의 불평등구조를 종교사상적으로 극복해 가던 불교를 축출함으로써 인도민중을 오늘날까지 카스트의 굴레에 놓이게 했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문명사적인 죄악이다.



홍 사 성
〈불교TV 제작국장〉

그런데 인도에서 이슬람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와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서양의 또 다른 유일신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그동안 서양종교의 광신도들에 의해 자행된 훼불사건은 일지(日誌)가 없으면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다. 86년 금산사 대적광전 방화사건, 87년 제주도 관음정사 연쇄방화사건, 89년 서울 평창동 흥은동 일대 사찰의 불상·석등 파손사건, 90년 불교방송 침입사건, 93년 육군모부대 훼불사건… 그리고 올해는 수유리 본원정사와 삼성암의 법당과 나한전, 종각이 방화로 전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경남 진해 청룡사에는 목사가 법당에 침입해 불상을 부수고 탱화를 찢는 난동까지 부렸다. 이밖에도 많은 사찰이 광신적 이교도들의 공격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불교의 관용성을 역이용한 이같은 훼불은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설교시간을 통해 불교 비방하기, 절에 찾아와 찬송가 부르기, 불상앞에 오물 뿌리기와 같은 몰상식한 행위는 차라리 애교에 속한다. 이제 서양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은 불교를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사찰을 '마귀의 소굴'이라면서 불상을 파괴하고 사찰을 방화하는 범죄적 공격행위를 서슴치 않는 실정이다.

여기서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저들의 교활하고 뻔뻔한 변명이다. 훼불사건이 격화되고 사회의 여론도 나쁘게 돌아가자, 저쪽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일부 정신병자들의 소행이라며 애써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른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방화나 훼불사건은 몇몇 정신병자들이 하지만 그런 정신병자를 만들어내고 뒤에서 사주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점이다.

물론 모든 종교는 저나름의 진리와 가르침이 따로 있기는 하다. 그리고 그 진리는 상대적 신념체계가 아니라 절대적 신념체계인 까닭에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관한한 양보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은 불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이 곧 다른 종교를 공격하거나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절대적 신념체계끼리 대결하는 종교전쟁은 불가피하다. 중동전쟁이나 보스니아사태가 그 좋은 예다. 아직 한국의 경우 그럴 기미는 없다지만 현재와 같은 사태가 계속될 때 장래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 그렇다면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훼불사건이 초래할 종교갈등의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려서 여론화시키고, 관계당국에 범죄적 행위를 방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미리 막아야할 종교마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한국불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자기종교만이 최고라는 터무니없는 법집(法執)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종교로 굳건히 자리한다면 아무리 미치광이라도 훼불과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계할 일은 외부적 훼불 못지않게 부처님의 정법을 훼손하는 내부적 훼불이다. 내부적 훼불이란 불교를 스스로 미신화(迷信化)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교도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원인이 된다.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것은 이슬람의 공격이라는 외적 훼불보다 스스로 타락해서 힌두교에 동화된 내적 훼불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 참다운 호불호법(護佛護法)은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하다.

봉 북한산 (삼각산) 노적사 오백나한 봉안 축

북한산(三角山) 적멸보궁

『노적사』 도량 경내지에 오백나한을 모십니다.
오백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제자 중에 아라한과를 증득한 오백성중을 말합니다.
서울의 두상과 같은 삼각산 적멸보궁의 명기어린 노적봉 산세는 『원효대사님』과 『의성대사님』께서 중성문을 두고 國運의 기도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노적사』에서는 오백나한의 봉안불사를 봉행하고 있사오니, 청정한 심신으로 성스러운 불사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고 공덕을 지으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353-5016, 353-4924, 354-7900
■ 국민은행 : 024-21-0528-025 · 예금주 : 박병권
■ 신한은행 : 316-02-071939 · 예금주 : 박병권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주지 : 석 종 후 합장

법회 안내

삼충사(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영주암(051)754-22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저녁7시
참선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동원정사(0346)593-7584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자비향법회 매월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성주암(02)877-7180
거사림법회 매주 일 오전6시
연화법회 매월3일(음) 오전11시
청년법회 첫째, 셋째 일 오후2시
천수경강의 첫째, 셋째 일 오전10시

용천사(032)502-6058
회업기도법회 1일(음)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금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안정사(02)292-2439
인등법회 매월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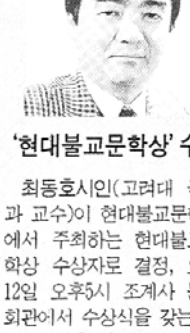
거임정사 포교원(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1시
교리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화 오후8시30분
건강법회 넷째일 오전10시30분

송광사 포교당(0694)857-232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중·고등법회 토 오후3시30분
청년부법회 첫째 일 오전10시

관음사(051)205-0069
초하루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자일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 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문청년회 첫째, 셋째 일 오후2시
금강경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수타사(0366)33-6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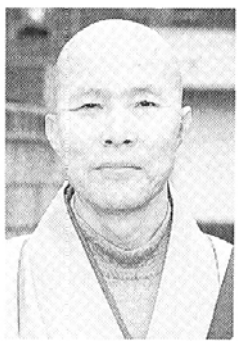
'현대불교문학상' 수상

최동호시인(고려대 국문과 교수)이 현대불교문학회에서 주최하는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결정, 오는 12일 오후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수상식을 갖는다.

수상작은 詩 〈어린아이와 산을 오르다〉.

"재소자 포교활동 불제자 사명이죠"

법의날 목련장 받은 동광 스님



지난 1일 법의 날을 맞아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스님이 재소자 교화활동, 전국교정시설 위문 등을 통한 인권옹호와 재범율 감소 준법의식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동광스님은 "불제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쉬지말고 계속 이웃사랑에 매진하라는 격려로 삼겠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동광스님은 재소자교화 활동 이외에도 결식아동과 무의탁노인을 위한 자비의 집,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인 경찰을 위한 수계 및 위문법회도 열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이국땅 법당건립 불자지원 아쉬워"

뉴질랜드 한국불교인회 황 경 호 회장



뉴질랜드 한국불교인회 황경호회장이 지난 23일 뉴질랜드 남국정사 건립을 협의키 위해 일시 귀국했다.

황회장은 "94년 1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불자모임을 만들고 매주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으나 사찰이 없어 부득이 고국의 불자들을 찾아왔다"며 방한 목적을 밝혔다.

뉴질랜드 교포는 1만5천여명. 교회는 50여개에 이르나 사찰은 한곳도 없다. "교포들과 고국불자들의 도움으로 모금한 13만불(약7천만원)로 부지를 마련하고, 올 9월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법당과 요사채, 한인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2억여원이 필요합니다. 3백여 회원의 신행공간과 부처님 안식처 마련을 위한 불사에 고국불자님들의 동참을 당부합니다."

동참문의: 뉴질랜드 남국정사 건립후원회(02)774-7741 장태균.

〈운〉

교차로

서화집 출판기념법회



송월스님(해인사)은 8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화집 출판기념법회를 갖는다.

목등회관에 1천만원 기탁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26일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에 교육기자재 구입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대만 성인스님 49재 참석



일화스님(법륜종 종정)은 오는 9일까지 대만을 방문, 세계불교동수회를 창설한 故 성인스님 49재에 한국불교동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불교아동문화' 출판회서 법문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은 4월27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도서출판 하나원의 '불교아동문화 출판기념법회'에 참석, 법문했다.

삼화사 약사전 기공식



원행스님(삼화사 주지)은 19일 두타산 삼화사에서 약사전 신축기공식을 봉행한다. 스님은 또 4월 30일 동해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됐다.

소년소녀가장에 장학금 전달

지원스님(부산 수영구 사암연합회장)은 지난 4일 수영구청에서 관내 20여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양의 역사·문화…' 발간

백산스님(모충사 주지)은 지난 1일 사천시 남양농협예식장에서 향토사지 〈남양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국립공원 위원에



명섭스님(구례 천은사 주지)은 지난 2일 문화재관람료 자율화에 따른 총무원장 공로패를 받았다. 스님은 이에 앞서 국립공원위원으로 위촉됐다.

청각장애인들과 성지순례

혜성스님(광림사 주지)은 지난 2일 광림사 운전자불자회와 신도회의 후원으로 청각장애인과 함께 공주 마곡사, 성곡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송수기념 논문집 받아



서돈각박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는 77세 송수(頌壽)를 맞아 지난 3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법학교수회가 베푼 논문봉정식에서 〈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념논집을 봉정받았다.

아시아소사이어티회의 참가

조해형씨(불교방송 사장)는 9일~11일 서울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소사이어티 서울국제회의에 참가한다.

재학생 발전기금 받아

송석구총장(동국대)은 4월29일 산업기술대학원 송영규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재학생들이 모금한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받았다.

봉화산 청소년 축제 개최



선진규원장(봉화산청소년수련원)은 지난 5일 어린이의 날을 맞아 수련원에서 제8회 봉화산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다.

태국 불교미술 순례



손연칠씨(동국대 교수·불교미술)는 4월25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재학생 40명과 함께 태국 불교미술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봉축 서예 백일장



오경용회장(제주불교법우회)은 11일 제주시 남녕고등학교에서 초·중·고 서예백일장을 개최한다.

명심보감 무료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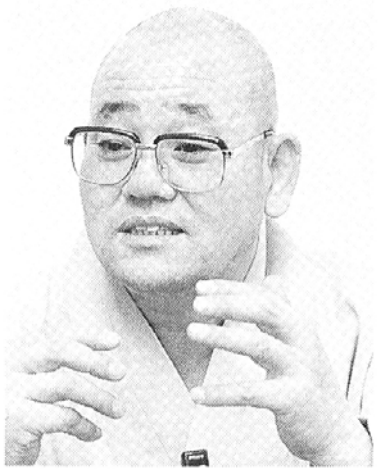


박동춘씨(과천서당 원장)는 4월부터 매주 금요일 경기도 과천도서관에서 명심보감 강좌를 하고 있다. (0343)503-2992

웅전갤러리서 두번째 조각展

전미정씨(조각가, 불교미술인협회원)는 11일까지 견지동 웅전갤러리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수덕사 주지 다시맡은 법장 스님



"강원·율원·염불원 일으켜 수행도량 위상 세울터"

"수덕사는 경허 만공스님이 한국불교를 꽃피운 선종의 본찰입니다. 사중의 역량을 모아 부처님의 혜맥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19일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로 재임명 받은 법장스님은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 대중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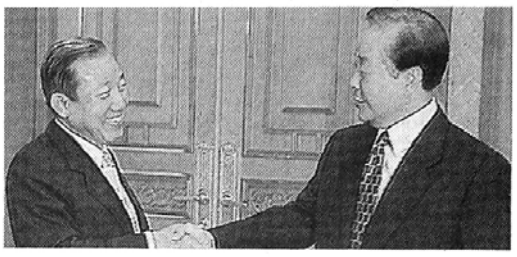
스님은 "지난 4년간 삼보정재를 지키기위해 사중에 얽혀있던 시시비비를 해결하면서 사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법과 관련 정재회수를 위한 작업이라 성직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해내야 했지요"라고 회고하면서 "그러나 집짓는 일보다 불법을 계승하고 지키는 불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금년 동안거에 강원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스님은 "율원과 염불원을 활성화시켜 덕숭총림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교구본사로는 최초로 불교 장의포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영탑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이미 세미나 등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수덕사가 계획하는 영탑공원은 7만여평 규모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빈공간에 영탑을 세우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생명나눔회 이사장, 한·태불교협회 회장, 전국운전불자연합회 총재, 대한불교청년회 부총재등 대사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스님은 "사회 구석구석 어디든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준엽 기자



김대통령 불교방송 개국 6돌 축하

불교방송 개국 6주년을 맞아 조해형사장은 4월 29일 오후4시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단독 대담을 나눴다.

김대통령은 "불교방송 개국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1세기를 앞둔 책임있는 방송, 국민의 마음을 쓰다듬는 방송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담에는 보도국 이영일 부장이 배석했다.



불교인클럽 '빈곤퇴치 걷기대회'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 한국위원회 불교인클럽(회장 제원)은 지난달 28일 남산일대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사랑의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제원스님(길음복지관장) 현승종(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 조해형(BBS 사장) 박완서(작가) 안성기(영화배우)씨등을 비롯 시민 1만여명이 참석했다.



불교방송 개국 기념대탑 기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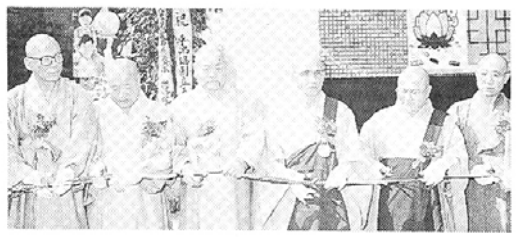
불교방송 개국기념대탑 기공식이 지난 1일 서울 관음사서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조해형사장,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 총지종 법공통리원장, 조기현 전 전국신도회장, 국회의원 이상현씨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자원봉사센터 개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 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 지부개설 및 광주단원교육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 능인불교회관에서 봉행됐다. 도공스님(광주 향림사) 김두원씨(광주능인회장)를 비롯 60여명의 교육 참가자들이 참석한 이날 지부개설은 사회복지재단이 전개하는 전국 1사찰 1봉사센터 개설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평불협 5돌기념 및 사무실 이전법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창립 5주년 기념 및 사무실 이전법회가 4월26일 견지동 평불협 새 사무실에서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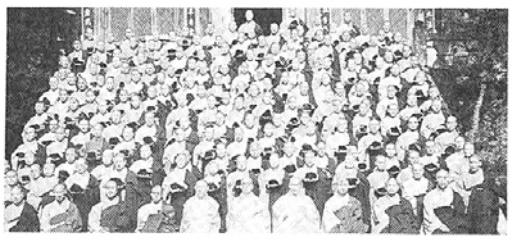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으로 북한사찰 및 유적사진 전시회도 함께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월주스님 혜초스님 성타스님 원우스님 선일스님 김재일 법사 민병용씨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서귀포 연화어린이집 낙성식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시몽) 연화어린이집(원장 진구)이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법화사에서 낙성식을 가졌다.

이날 낙성식에는 중원스님(관음사 주지), 오광협 서귀포시장, 원정상 서귀포 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연화어린이집은 건평 130평에 6개반 시설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조기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다.



식차마나니 수계산림 봉행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이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범어사 대성암에서 봉행됐다.

총 1백67명이 참가한 이번 산림에서는 송광사 보성스님을 전계사로 심사를 거쳐 1백63명의 식차마나니들이 계첩을 받았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종진(교수사), 성우(갈마사), 청우(유나), 지운(인례)스님 등이 참석했다.

교류 자석을 이용한 自然 治癒法 -성인병과 난치병에 특효



대표 김쌍용

생체 자기연구원-상록

※ <바이오·빔>과 현대인의 건강 :

지구는 원래 거대한 자석(磁石)덩어리이며 인간은 지구 표피로부터 분출하는 지자기(地磁氣)를 흡수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가져온 생활권은 자기(磁氣)를 차단하는 철제문화권(鐵製文化圈 : 주거,교통수단 등등)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차단된 생활환경에 파묻혀서 살게된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지자기 흡수(地磁氣 吸收)의 부족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면역력 (免疫力)의 약화로 말미암은 여러가지 성인병(成人病 암,고혈압,당뇨,간장병,중풍 등등)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원인이 불분명한 부정수소증후군(不定愁訴症候群 어깨,허리,다리등의 통증)의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체로 자기부족(磁氣不足)에서 오는 혈액의 악순환(惡循環)이 초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소개하는 전력병동자기장치료기(電力變動磁氣場治療器)는 이 자기결핍현상(磁氣缺乏現像)을 인공적(人工的)으로 보충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尖端科學技術)을 써서 고안한 것입니다. 이 <바이오·빔>의 마력은 자기(磁氣)의 인공적인 보충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아울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 암,당뇨,중풍,고혈압,치매등을 예방 치유

※ <바이오·빔>의 효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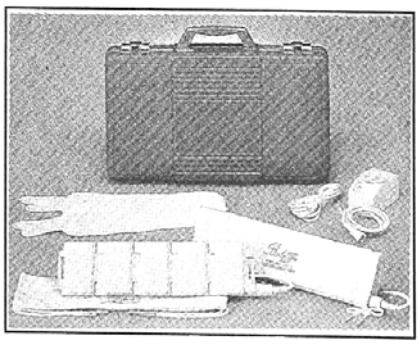
(1) 우수히 많은 자력침 (磁力針:1평방㎝ 면적에 550개의 침)이
(2) 전신의 경혈을 동시에 직접 그리고 오차없이 정확하게
(3) 지속적으로 자극 (刺戟:1분에 약 3600회) 함으로

순차적으로 몇개의 침을 놓는 명의(名醫)보다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동자기장치료기는

첫째로 기(氣)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경혈요(經穴療法)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과학적 경혈요법으로서
둘째는 자극 (磁極) 변동에 의한 미세한 진동을 수반하는 온혈요법 (溫血療法)을 겸하게 됩니다.
셋째로 변동자기는 경락(經絡)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도 동시에 작용하여 혈액순환(血液循環)을 순조롭게 하고 신진대사(新陳代謝)를 촉진합니다.
넷째로 특기할 효능은 봉한학설(鳳漢學說 漢方醫學을 洋方으로 체계화한 학설로서 서구사회에 일찌기 經絡 System으로 알려진 바 있음)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인체의 전경락(全經絡)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오·빔(생명광선)이야말로 신체의 모든 부위를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전신·만병치료기(만병(全身·萬病治療器)라 하겠습니다.

◆바이오·빔◆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1409호(선릉역 앞)
상담실 전화 : (02)527-3125~6

"잡초들도 어울려 사는 지혜 있어"

산문밖의 禪

야생화연구 25년 김 태 정 씨



사람들은 식물에 전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식물에 대해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거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거의 의식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도 삶에 있어서는 사람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짓밟고 있는 잡초들도 자기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어울려 사는 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계에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가 철저합니다. 이른 봄 큰나무밑에 키가 10㎝ 미만인 제비꽃, 민들레 등이 먼저 꽃을 피웁니다. 아직 나뭇잎이 나기 전이라 마음껏 햇빛을 받을 수 있지요.

아름다운 우리꽃 알리기

키작은 꽃들이 열매를 맺을 무렵 20㎝ 정도의 금낭화 은방울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6월쯤 가서야 큰나무들의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지요. 다 햇빛과 벌 나비들이 차례로 올 수만 해도 아무도 우리 꽃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요. 심지어 들과 산을 헤매다 간첩으로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답사나갈 돈이 모자라 사진기재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못찾아 애를 태운 적도 여러번입니다.

지난 85년 야생화 연구의 첫 결실인 〈한국야생화 제1집〉도 어렵게 나온 책입니다. 처음 다루어진 야생화 부분의 연구라 여기저기서 화제는 되었지만 책이 잘안나가 빚때문에 사무실을 쫓겨나다시피 했지요.

이제는 각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책을 내자고 할만큼 야생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꽃 책이 국민 남녀노소 각층에 두루 읽히고 있는 점입니다. 달력이나 카드로도 많이 제작되어 우리 꽃들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야생화 연구 25년의 보람이라면 큰 보람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꽃만 화려한줄 알고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좌 있습니다

민통선등 전국 산하 샅샅이… 꽃사진 60만컷 보유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니 그 결과는 사람의 몫"

있지 하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세상은 그게 아니지요. 계단을 밟아올라가기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이 걸리는 일이면 남이야 어찌되든 아랑곳을 안하고 짓밟지요.

최근 우리땅에서 자라는 식물 2천 2백종을 총망라한 〈한국의 자원식물(전 5권)〉을 냈습니다. 야생화를 사진과 더불어 속명 분포 특징 용도 번식 등 식물학적 설명과 함께 소개, 특히 식물의 전체 모습뿐 아니라 각 부위의 잎 열매 등의 세부적인 사진까지 넣어 단순한 도감을 넘어 실용서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 〈약이 되는 야생초〉 〈쉽게 찾는 우리꽃〉 〈휴전선의 야생화〉 등 우리꽃 관련 총 29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다음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피는 우리꽃〉을 펴낼 계획입니다.

사실 내가 야생화연구를 한답시고 들과 산을 좇아다닐 초창기인 70년대만 우리꽃에 관심갖다 보면 그 아름다움과 청초함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야생화연구소' 사무실에는 60만컷 이상의 칼라 꽃사진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동안 민통선 북방지역자연생태조사, 섬지방탐사, 백두산야생화 학술탐사 등 국내에서 행해진 학술조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가한 소산입니다. 각 방송사나 신문사등 여러 곳에서 특집으로 쓴다며 꽃사진을 빌어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 자식을 잠깐이나마 남의 집에 보내는 심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분별심으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또는 잡초니 이름모를 들풀 이니 하며 분류를 하지요. 전부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분류지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식물에서 나옵니다. 우리 식물의 98%는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계가 없던 예전에는 집집마다 분꽃이나 박꽃을 심어 꽃이 필 때 저녁을 지었고 쪽이란 식물에서 물감을 추출했지요. 화학물감이 들어와 대량유포되면서 쪽이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통도사 스님이 쪽을 절의 밭에 심어와 그 명맥을 유지시켰지요. 지금은 쪽이 많이 퍼져 그것을 천연염료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어 그 스님께 고맙더라구요.

예전에는 절에서 희귀종 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절에서 우리꽃의 전통을 보존해온 셈이지요.

"들꽃세상엔 뽐냄이 없다"

도시에 살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앞 잔디밭이나 길가 언덕, 학교가는 길목 빈터 등지에 수없이 피고 지는 풀꽃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산길을 거닐면 험한 바위끝 가파른 벼랑 틈 어디든지 살아있는 생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을 보노라면 혹시나 지금 닥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갈 궁리에 몰두하고 있지않는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면서 위로만 위로만 치닫기를 원해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에 항상 불행해 하는 사람들에게 들꽃의 삶을 배우라고 감히 권유합니다.

25년간 전국산하를 뒤져온 덕분에 내 머리속엔 꽃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꽃피는 철이 되면 "어서 떠나야지" 하며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생태계파괴로 풀꽃들이 많이 사라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칠줄 모르는 탐욕이 자연을 어디까지 파괴시킬지, 자연이 스스로 소생할 마지막 힘을 잃고 난 뒤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고통일지….

어릴 때부터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맺는 과정을 보고 자라는 사람은 절대 공짜를 바라지 않고 잘난척 뽐내지 않고 자연을 마구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꽃세상엔 다툼도 뽐냄도 없으니까요.

이경숙 기자

환청·이명에 시달립니다

문 30대 직장인입니다. 십여년 전 어느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천수경 외는 소리가 들리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편 놀라고 한편 신기하게 느꼈는데 그 후로는 환청, 이명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후 단전호흡 수련을 하면서 세칭 도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몸의 증세나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모든게 제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 없습니다.

〈이방희·경기 의정부 가릉동〉

답 늘 말씀드리지만 안팎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는 다 내가 나를 성숙시키려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공부의 재료인 셈이지요.

비유하여 컴퓨터를 봅시다. 입력된 정보는 계기를 만나면 반드시 출력이 되게 되어있지요. 더도 덜도 아니고 입력한 양만큼 말입니다. 사람의 업식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전자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은 단 한치라도 썩지않고 채곡채곡 쟁여져 있다가 때가 되면 솔솔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밖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요. 모든게 인과성, 영계성, 유전성 등에 의한 것인데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그것도 나온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에 다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몸이 괴로운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요는 그점을 철석같이 믿질 못하기 때문에 자꾸 끄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사님 같이 특이한 경우는 믿음이 약해서 마치 빈 집처럼 보이는 경우인데 굳은 믿음으로서, 다가오는 경계를 몽땅 주인공 자리에 놓는다면 분명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자리를 잘 관해보기 바랍니다. 실은 그런 경계 또한 본래 있지도 않은 그림자같은 것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믿고 몽땅 놓아야 합니다.

최근 타종교 신도가 급증하는데…

문 타종교의 포교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까닭인지 근래 신도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각자 불법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신도 수를 늘리는 포교업무가 더 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진구·울산시 동구 전하동〉

답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불교다 기독교다 하는 그것은 다 상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주처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어라, 절대로 타력에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진리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 기독교, 불교로 나누는 그런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만물만생에 불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제 생명에 의지해 움직이고 삽니다. 이 생명을 떠나서라면 부처님은 어디 있고 기독교는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완성이 곧 하나님이다' '자기지혜가 곧 하느님이다' '일체의 능력이 곧 한울님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셋, 그것도 이름입니다만 그걸 다 합쳐서 불교요, 하나로 꿰어 자재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절, 네 절 따지고 싶지 않고 내 신도 네 신도를 관계치 않습니다. 생명의 이치 그대로가 佛이요,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敎인데 신도가 많이 올까 안올까 무슨 걱정입니까. 어디서든 가르침을 옳게 배울 수 있다면 그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한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서 내 의자, 네 의자를 다퉈서야 될 일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름에 걸리거나 속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절대로 타의에 끄달리거나 타력에 의지하지 말고 내 생명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를 믿는다해도 타력에 의존하는 기독교나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물질세계 연구도 필요한지요

문 대학 신입생입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세계보다 정신세계를 더 중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물질세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입장에서 보아 물질을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할까요? 〈조충헌·서울대 자연대〉

답 아니지요.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구할 수 있지요. 정신이 없다면 물질이 없고 물질이 없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둘을 다 알아야 온전하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천체물리학이라 할 때 전파망원경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한계가 없지요. 그렇게 한계없는 도리를 알아야 전체를 탐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한계없는 도리를 터득할 능력이 있으니 전체를 아는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과학의 생활화요 생활의 과학화인 셈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정신을 따로 떼어놓고 물질을 물질로만 본다면 아무리 연구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결국은 반쪽 50%밖에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한계를 그어 놓고서 어떻게 전체를 탐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쪽만 아는 물질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히 터득하자면 마음도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현대의 과학이 물질과학이 아니라 심성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편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베어있는
쉬운 법화경.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범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李東炳역·釋能嘉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에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3,000원

2. 대장부론 李東炳역·釋能嘉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편저

4. 육묘법문 李東炳역·釋能嘉감수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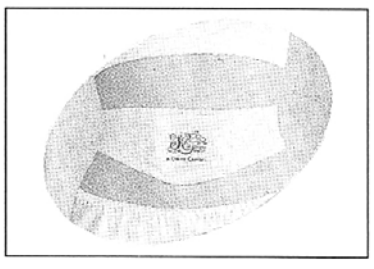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 야 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나옹스님 禪사상은 '돈오무심'

인도에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지공스님(?~1363)이 인도의 나란타사를 본떠 대규모로 창건했다는 회암사. 고려시대 나옹(1320~1376)스님과 조선초 고승 무학스님(1327~1405)이 주석하면서 선풍을 크게 떨친 곳이다. 스님들의 부도가 현존해 있는, 당시 전국사찰의 총본산이었던 회암사는 지공·나옹·무학스님을 추모하고 스님들의 선사상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지공·나옹 화상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지난 4일 회암사 설법전에서 개최했다.





◇나옹(왼쪽)·지공화상은 고려후기의 사회적 모순과 불교계 내부의 갈등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이며 불교가 점점 쇠퇴해 가는 시대조류 속에서 불교를 발전시킨 선승들로 꼽힌다.

회암사 지공·나옹스님 재조명 학술대회

생활수행 통한 깨달음 게송으로 노래 나옹
'단경' 가르침 이어 고려불교에 새바람 지공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신규탁교수(연세대)는 '나옹화상의 선사상'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에서 나옹사상은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다는 진여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과 깨우치고 난 후 수행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돈오무심사상이며, 임제의 선풍을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의 본래면목을 돈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여(眞如)란 고정된 것 또는 실체를 인식하는 것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멸하지 않는 불성이 있고, 이 불성을 철두철미하게 깨치기 위해 선종의 실천방법론인 돈오무심(頓悟無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무심의 상태가 無記空인지 아닌지는 화두가 분명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돈오무심'은 멸하지 않는 불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불성론' 사상과 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옹사상의 근본이라고 신교수는 주장했다.

신교수는 또 쉼없는 화두 참구를 강조한 나옹선의 특징으로 첫째 남의 말을 흉내내기를 극히 싫어했던 까닭에 깨달음에 들어맞는 적절한 언어표현을 요구했다는 것과 둘째, 수행자마다 모두가 법왕이라고 말하는 등 철저한 자기확신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구체적인 현실에 도가 있다고 주장한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표교수(홍익대)는 '나옹화상 계송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발표에서 나옹스님의 詩는 신앙보다는 주로 수행에 관한 수행門으로 成佛하는 과정을 노래했으며, 형식적으로는 대립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어 시세계를 한차원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불의 과정은 반드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래했으며, 그 수행방법으로 염불, 좌선, 의두연마 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활용한 무시선법(無時禪法)에서 정각정행(正覺正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자연의 사물을 빌어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허흥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지공화상의 국제적 관심과 연구방향' 발표에서 지공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법손들에 의해 한국불교가 유지돼 왔다며 기존의 통설인 태고법통설을 거듭 부정했다. 허교수는 흔히 고려말에 불교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이때부터 지공선사는 불교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으며 바로 지금까지의 불교사상은 지공사상의 계승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지공사상에 관한 연구가 계속돼 왔음에도 연구자들이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를 수렴하지 못해 원만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허교수는 지공선사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모아 전집을 엮는 등 국제적 협력관계 속에서 지공사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욱교수(중앙승가대)는 '지공禪사상의 특색'에서 지공의 세계관은 모든 중생이 생멸이 없는 體를 가지고 있으며, 그 體를 드러내는 방법인 진공무상 즉, 진공(眞空)의 철저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진공무상 방법은 지공의 실천관인 계·정·혜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부언하고 '단경'의 기본입장인 無相·無念·無住와 그 기본입각처가 서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義寂스님 '법화경집험기' 일 동경대서 소장

김상현교수 복사본 상하 2권 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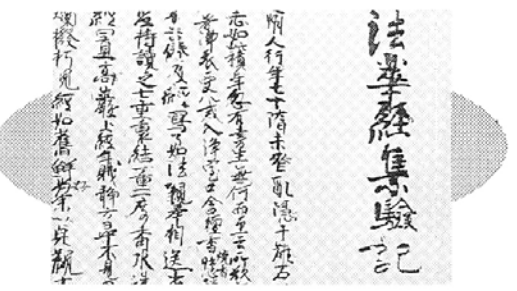
신라 법화신앙 영험담 이해 노움

7세기 후반 법상종의 학승으로 유명한 신라스님 의적(義寂)의 저술 '법화경집험기(法華經集驗記)'가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현 교수(한국교원대)는 최근 일본의 시게마두(茂松性典)스님으로부터 동경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문 적찬(寂撰)'의 '법화경집험기' 상하 2권이 신라스님 의적의 저술임을 소개한 '일본역사' 390호의 보고서와 이의 영인본(귀중고전적간행회 刊) 복사본을 전해받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화경집험기'는 '고승전' '동하삼보감통록(東夏三寶感動錄)' '집신주삼보기(集神州三寶記)'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요집(要集)' 등 6종의 영험기류를 인용하고 있으며, 전체 39항목의 영험담은 대부분 중국의 사례고, 우리나라의 영험담으로는 '관세음응험기'로부터 인용한 백제 발정(發正)의 것이 인용돼 있다.

김상현 교수는 이번 신라 의적의 '법화경집험기' 2권의 확인은 잃어버린 신라 고전적을 다시 찾음으로써 의적의 사상 및 신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7세기 후반 신라에서의 '법화경' 신앙과 영험담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고 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또 일본에서 영인본이 간행된지 15년동안 우리 국내 학계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한국학 관련 연구성과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신라스님 의적(義寂)의 저술 '법화경집험기'.

"禪심리학으로 통일방안 찾자"

평불협 창립5돌 법회서 이광준박사 강연

김정일의 인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 남북한간의 통일문제에 접근한 이색적인 강연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동국대 대학원과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선(禪) 심리학을 전공한 이광준박사(동국대 강사)는 지난 4월26일 평불협 창립 5돌 기념법회에서 '북한문제의 통일심리학적 접근'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김정일의 출생과 성장과정, 인격발달과정, 신체적 형태, 가족상황, 정치적 성장과정 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안정된 듯하면서도 불협화음이 따르고, 불안정한 듯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쉽으로 안정을 꾀하는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일 자학적 심리상태
상호신뢰 구축 선결돼야

또 최근 김정일의 심리적 상황은 주변 4강국들의 견제와 상임정치위원들의 통제로 인한 심리적 무력감으로 구강기적 의존욕구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의존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자학적 공격심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교수는 지금의 북한사회는 김일성 김정일이 해방이후, 조선시대의 임금님 상을 그대로 유지, 신(神)의 대리자로서 군림해 온 양상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4천만 한민족사의 민족심리학의 체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남북의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발전적인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금강산 등의 관광자원개발과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신뢰구축, 이산가족의 민간교류문제 등의 해결책을 상호협력적인 자세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필선 기자

美英 불교학 기초자료집 간행 '활발'

東亞불교연구참고문헌 서평 6백권·색인 등 다양한 자료 수록
빠알리어학회지 22호 저명학자 논문·강연 실어 올여름 출간

불교학 연구의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 논문집·문헌집 등이 미·영국 등지에서 활발히 간행되고 있어 동양 종교인 불교를 올바르게 연구하고자 노력하는 서구 종교학자들의 노력의 성과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성과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3월에 인터넷에서 전자출판된 〈동아시아 불교연구 참고문헌〉(East Asian Buddhist Studies A Reference Guide)과 오는 7월경에 출간될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지 22호〉 등이다.

'불교실천윤리'(미국)에서 전자출판한 〈동아시아 불교연구 참고문헌〉은 총 44쪽 분량으로 동아시아 불교관련 단행본 및 연구서 등 약 6백여권이 간략한 서평과 더불어 수록돼 있다. 또한 참고문헌 색인에 있어 빠알리어·티벳·산스크리트 등의 언어 구분을 통해 원어경전 분류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역경된 경전을 국가별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리고 불교용어 및 문법 등을 연구하는 '불교술어학'(terminology)을 통해 경전의 언어연구 참고문헌 색인도 들어 있다. 이외에도 저자별 색인 및 각국의 불교관련 도록·불교사·축제·전래동화·속담·명언록·학파 구분·수행법·인터넷 주소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자료가 수록됐다. 〈동아시아 불교연구 참고문헌〉은 '불교실천윤리' 웹사이트 〈http://www.psu.edu/jbe/jbe.html〉에서 제공된다.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영국)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22호〉는 올해 여름에 출간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피터 스킬링 박사, 샐리 멜릭박사 등의 소고가 실린다. 피터 스킬링은 이미 〈티벳의 대승경전〉을 출간해 반향을 일으킨 세계적인 빠알리어경전 연구가.

또한 빠알리어 사전편찬으로 주목받는 마가렛 콘 박사의 '빠알리어-영어 사전'이란 주제의 강연이 요약되어 수록된다. 그리고 윌헬름 가이거(독일)가 쓴 〈빠알리어 문학과 언어〉에 대한 노만교수의 서평도 각각 실린다.

한편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는 앞으로 노만교수의 〈법구경 논문집〉, 검블리히교수의 〈게송(偈頌)모음집〉 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리차드 검블리히 교수(옥스포드大 영국)가 학회장을 맡고 있는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는 1981년 노만교수의 주창에 따라 설립됐으며 빠알리어경전 연구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회이다. '빠알리어 학회 22호'를 구하기 위해선 〈73 Lime Walk, Headington, Oxford OX3 7AD〉의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오종욱 기자

송광사 약사전등 문화재 21건 일제 보수

순천시 6월부터 연말까지

순천시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송광사 약사전(사적 302호)등 관내 21건의 주요문화재를 대대적으로 보수·복원키로 했다. 시는 송광사 약사전 외에도 영산전(사적 303호), 대지전, 성보각을 각각 보수하고, 동화사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61호)과 향림사 대웅전, 선암사 불조전, 충열사, 육충사 등도 각각 보수할 예정이다.

도선국사 열반지 옥룡사 복원

도선국사가 입적하기까지 35년 동안 머물렀던 옥룡사지에 대한 발굴 및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도선국사(827~898)가 머물며 불도를 닦았던 옥룡사지를 복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11월까지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발굴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94년부터 2년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관계전문가들을 초청, 현지답사를 벌였다. 옥룡사는 1878년 불에 타 폐허로 변한 뒤 여러채의 민가들이 들어와 개간하고 살았으며, 1969년 옥룡사(당시 동백사)라는 새로 지은 대웅전 등 3동의 건물만이 현존하고 있다.

'21세기와 불교' 심포지엄

16일 조계사 문화회관

한국불교사회연구소(소장 송회식)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21세기 사회변화와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봉축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권력의 이동과 종교의 사회참여'(송희식)와 '경영혁신과 종교 조직의 혁신'(노부호교수·서강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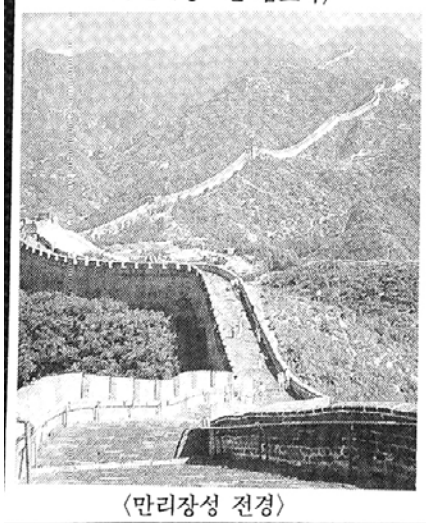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구화산·보타 낙가산 성지 순례

양일스님(국제불교자비회 회주, 카나다 대각사 회주)와 함께 지장 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의 육신보전(중국 구화산)에서 구화산 방장 인덕 스님과 함께 지장보살 점안식,(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지장 보살님을 조성하여 모셨으므로 복장물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구화산 불학원에서 장학금 수여식, 보타 낙가산에서 방장 선묘 스님 초청 오찬 등, 지장 기도와 관음기도를 겸한 중국 성지 순례에 뜻을 같이하실 스님과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지장보살 김교각〉



〈만리장성 전경〉

《중국 여행 일정표》

◈ 일정명 : 서울/북경/남경/구화산/항주/천태산/닝포/보타산/상해/서울
10박 11일 (인원수 38명) TOTAL : 한화 1,250,000원정

일 자		출발/도착	교 통 편	투숙호텔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1일	6월 5일	서울-북경	CA124, 13:50-14:40	우의호텔	중국불교협회, 시내관광
제2일	6월 6일	북경	BUS	〃	자금성, 천단, 이화원, 서커스
제3일	6월 7일	북경	BUS	〃	만리장성, 융허궁
제4일	6월 8일	북경-남경 남경-구화산	CA1507, 07:30-09:15 BUS	거룡호텔	지장보살 점안식, 백세궁 참배
제5일	6월 9일	구화산 구화산-황산	BUS	북해호텔	구화산 불학원에서 장학금수여식 케블카로 등정
제6일	6월 10일	황산-항주	BUS	신교호텔	호텔휴식
제7일	6월 11일	항주-천태산	BUS	천태호텔	아육왕사, 회청사, 고명사
제8일	6월 12일	천태산-닝포	BUS, 닝포-보타산 배 소래산장 호텔휴식		
제9일	6월 13일	보타산 보타산-상해	BUS 선박, 6:15-오전5:30	〃	보제선사 참배 및 오찬, 오후 관광 상해 도착
제10일	6월 4일	상해	BUS	신야광장호텔	옥불사, 예원, 홍구공원, 임정
제11일	6월 15일	상해-서울	MU5041, 09:00-11:55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 항공예약 관계로 선착순 마감. 계약금 ₩300,000원정(취소시 반환 불가)
◈ 접 수 처 : 법보신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87-1 진우빌딩1층 (02)725-7010 FAX 725-7017
◈ 기 획 : 국제 반야 자비회
◈ 협 찬 : 법 보 신 문 사

*동참금 : ₩1,250,000원정 일체 모든 경비가 포함되었고 현지 한국인 관광 안내인 2명이 불편없이 도와 드립니다.



〈天然奇景黃山〉

불교 지향점 열반…업사상은 방편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⑭

윤 회 ④



◇불교의 지향점은 정각을 통한 열반이다. 일반신도는 이 세계에 다가가기 어려우므로 차선의 방편인 선업·공덕쌓기를 강조하는 인도의 윤회·업사상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육도윤회 중 아귀의 한 부분을 묘사한 해인사 감로탱.

개인은 영속하지 않지만 윤회하는 주체 일정

윤회의 문제는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의 문제와 연결된다. 〈순수의 길(Visuddhimagga)〉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다. "난 어디에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이 되어 본 일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한 무엇이 된적이 없다." 석존과 동시대인이었던 헤라클리토스도 비슷한 의미의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몸을 두번 적실 수 없다." 또 플루타르크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 안에서 죽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 속에서 죽는다"고 말했다. 〈순수의 길〉에 이런 말도 나온다. "미래에 살 인간은 과거에서 살지 않았고 현재 살지도 않는다. 현재 사는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았고, 미래에 살지도 않을 것이다."

헤라클리토스가 말한 인간의 무상성(無常性)을 피타고라스 학파의 에피카르무스는 그의 희곡에서 이렇게 풍자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쓴 사람이 어느날 친구를 만나자, 인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때 돈을 빌린 그 사람이 아니라고 우겼다. 친구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고 대신 저녁식사에 그를 초대했다. 그가 만찬장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이 그를 도로 내쫓았다. 친구는 이미 그를 초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원전 2세기경 서북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왕 메난드로스(인도명 미린다)와 불교 경전에 정통한 학승 나가세나(那先) 사이에 오고 간 대론서 〈미린다 광하(미린다 王問經)〉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개인은 영속하지 않지만 윤회하는 주체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왕이 묻는다. "윤회가 사실이라면, 다시 태어난 자와 죽어 없어진 자는 동일합니까. 혹은 다릅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한다.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요" "대왕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만일 그대가 그 어린애가 아니라면 그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선생도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죄를 지은 자와 그 죄로 손발이 잘린 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 주십시요." "여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켠다고 합시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대왕이여, 초저녁에 타는 불꽃과 밤중에 타는 불꽃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초저녁의 불꽃과 밤중의 불꽃이 각각 다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꽃은 똑같은 등불에서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대왕이여,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은 꼭 이와 같이 지속됩니다. 생겨나는 것(生)과 없어지는 것(滅)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존재는 동일하지도 않고 상이(相異)하지도 않으면서, 최종 단계의 의식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두 현자(賢者)는 여러 날에 걸쳐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마침내 그리스의 왕은 불교에 귀의하였다.

> "윤회가 사실이라면 다시 태어난 자와 죽어 없어진 자는 동일합니까"
> "존재는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면서 최종단계 의식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사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여섯가지라고 말한다. 이것은 육도윤회(六道輪廻)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1)천계도(天界道). 인도사회에서 상식화되어 있던 신화의 영향을 받아 대개 33천(天)이 있다고 한다. 살아 있을 때의 공덕에 의해 사후에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는 민간신앙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생천사상(生天思想)은 천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불교문학에서는 천계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2)인간도(人間道).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 어려움을 비유하기를, 심해(深海)에 사는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 수면위로 고개를 내미는데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무조각과 우연히 머리를 부딪칠 확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운다.

3)아수라도(阿修羅道). 아수라는 데바(神)의 적으로서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이나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거인(巨人)과 비슷하다. 전설에 의하면 아수라들은 브라만신의 서해부(사타구니)에서 태어나 땅밑에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살고 있다고 한다. 아수라와 비슷한 존재로는 나가(naga, 龍神 혹은 蛇神)가 있는데, 나가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뱀으로서 지하궁전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4)축생도(畜生道). 동물에는 네가지 종(種)이 있다고 한다. 첫째 다리가 없는 것, 둘째 다리가 두개인 것, 셋째 다리가 네개인 것, 넷째 다리가 많은 것으로 나눈다. 붓다의 윤회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本生譚)에는 여러 동물의 몸으로 태어났던 붓다의 전생(前生)이야기가 등장한다.

5)아귀도(餓鬼道). 아귀의 원말은 프레타(Preta)인데, 이는 '가버린 사람(죽은 사람)'이란 뜻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버림받은 영혼을 가리킨다. 아귀의 배는 산만큼이나 부풀어 있지만, 입은 바늘귀처럼 작아서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더럽고 피골이 상접해 있으며 검거나, 노랗거나 혹은 푸른 색을 띠고 있다. 그들은 인광(燐光)을 먹기도 하고 자기 살을 뜯어 먹기도 한다. 대개 공동묘지에서 배회하며 살고 있다.

6)지옥도(地獄道). 지옥은 대개 지하에 있지만, 바위 속이나 큰 접시안에 만들어 지기도 한다. 지옥의 중앙에는 염라대왕이 있는데, 그는 죄인에게 신(神)이 보낸 첫번째 전령(어린이)과 두번째 전령(노인), 세번째 전령(환자)과 네번째 전령(죄수) 그리고 다섯번째 전령(시체)를 보았느냐고 묻는다. 죄인은 그 전령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상징이고 경고였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염라대왕은 죄인을 열지옥(熱地獄)에 가둔다. 그곳은 네벽과 상하가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네개의 문이 있는데 지면의 철판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고 한다. 수백년이 지나야 겨우 한쪽 문이 삐끗 열리는데, 그곳을 나서면 분뇨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수백년 뒤에는 개(犬)의 지옥으로 옮겨진다.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은 정각(正覺)을 통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신도는 이 세계에 다가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교는 차선(次善)의 방편으로 선업(善業)과 공덕쌓기를 강조하는 인도 민간신앙의 윤회와 업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안 원 영 〈서울대 교수·임산공학〉 〈上〉



수계이후 "내 종교 찾았다" 감동 눈물

거사불교대학 다니며 정진…회심곡 용어 정리도

해방 이듬해 봄, 내 나이 열살 때인 어느 날, 할머님과 어머님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준비를 하신다. 내일 새벽에는 '네 부처님'께 가는 날이란다. 할머님 명으로 싯뿌연 새벽 어머니와 나, 쌀가마니를 진 일꾼 셋이서 집을 나섰다. 집에서 월악산까지는 백리길. 재 넘고 계곡 건너, 한없이 한없이 가다 보니 앞이 툭 트인 제비집같은 덕주사가 나타났다. 법당에서 스님과 절을 하고 또 한다. 처음 보는 절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 대웅전의 기둥은 왜그리 굵은지, 절의 모든 것이 웅장하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 눈이 내려 사방이 온통 흰 눈이다. 그 눈을 밟고 하산하여 집에 돌아오니 동네는 화창한 봄날이다. 어제는 눈이 그렇게 쌓인 곳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구꽃이 핀 곳에 있다니… 이러한 경험이 하늘과 땅처럼 월악산 덕주사와 고향집이 대비되어 덕주사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내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 덕주사여. 덕주사는 6·25때 완전히 타 버렸다. 덕주사는 내 마음속에만 남고 재가 돼 버린 것이다. 그 후 45년만인 지난 91년, 아내와 함께 덕주사 옛터에 들러 마애불께 참배를 드리며 어린 날을 회상해 보았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은 임종하시기 직전 가톨릭으로 귀의하셨단다. 아버님의 영향탓인지 우리 2남3녀 형제자매 중 나를 제외한 네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누님은 "세상사람이 다 가톨릭을 믿어도 동생은 안되네. 할머님이 동생을 위해 공양미를 이시고 덕주사에 가실 때 땅에도 안 내려 놓으시고 계속 머리에만 이고 그 먼 길을 다니신걸 내가 봤어. 그 공덕으로라도 동생은 부처님을 믿어야 하네" 간곡히 당부하신다.

해인사는 내가 수계받은 절이다. 지난 91년 8월 3일 종진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받고 '월타(月陀)'라는 법명으로 수계증을 받으니 눈물이 나왔다. 비로소 내종교를 찾은 감회에 눈물이 나온 것이다.

그때 까마득한 옛날 생각이 났다. 미국 유학을 떠날 때의 일이다. 여권을 받으려면 서너달이 걸리던 까다롭던 때였다. 신원진술서를 써야하는데 종교도 조사한다. 마침 독실한 가톨릭신도인 교수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는 "종교를 써서 꼬치꼬치 캐묻게 되면 귀찮으니 그냥 놔두는 것이 편하다"면서 종교란을 비워두라는 것이다. '참 그렇구나. 누가 불교 교리라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쥐뿔도 없구나' 나는 결국 종교란에 '무'자를 쓰고 말았다. 그 뒤부터 나는 애석하고 부끄럽게도 무종교자가 되고만 것인데 해인사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고 수계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가뿐한지!

1973년, 당시는 허허벌판이던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왔다. 큰 장마가 지면 지금의 무역회관에서부터 선릉 전철역까지 물이 차고 낚싯대를 든 낚시꾼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곤 하던 시절이다. 집 뒤에 있는 언덕마루에 올라서면 건너편 숲속에 봉은사가 보였다. 다음해 초파일에 아내와 함께 등을 달았고 그 후 시간만 있으면 봉은사를 찾았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은사 앞에서 장사꾼들이 회심곡 테이프를 팔곤 했다. 나는 월봉스님의 회심곡 테이프를 여러개 사서 틈있는 대로 듣고 있다. 내차에 동행하는 사람은 젊든 늙든, 종교가 있든 없든 누구나 회심곡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모두들 좋아한다. 회심곡의 내용을 알려고 대학원생들을 시켜 컴퓨터에 입력했는데 생소한 단어가 많다. 생소한 단어를 정리하여 회심곡 용어라 했다. 본문 열쪽에 용어 열여섯쪽이다. 회심곡 테이프를 달라는 사람에게는 이 본문과 용어집까지 주어, 읽으면서 들으라 권하고 있다.

90년 봄 봉은사 경내를 두루 살피다 초심자반 개설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보았다. "제대로 알고 부처님을 모시자" 이른바 발심이 생겼다. 그러나 금방 등록은 못하고 시간이 흐른듯 해 연구실에서 다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을 부탁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강의가 시작되어 하루가 늦었지만 열심히 나오래요." 아내가 전해왔다. 첫날은 결석한 셈이지만 그후로 결석은 없었다. 열심히 다녀 당시 주지 대운스님께 수료증도 받았다. 93년 봄부터는 거사불교대학에 다녔다. 졸업과 더불어 거사림 '부처님 섬기는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하였다. 지도법사인 승원스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초발심자경문〉과 〈선가귀감〉을 배웠는데, 이 경전법회는 참으로 지도법사 스님의 열과 성으로 이루어져 회원 모두 경전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했다. 나는 차츰 봄이 무거워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법회에 빠지게 되었으니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광사 대웅전
봉불식 및 점안식

해광사 대웅전은 2년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사부대중의 단합된 원력에 힘입어 장엄한 모습으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대웅전에 새로이 불·보살님을 조성하여 봉불식 및 점안식을 봉행하고, 이에 동참한 분들의 수승한 공덕을 불전에 고하고자 하오니 신심있는 청신사 청신녀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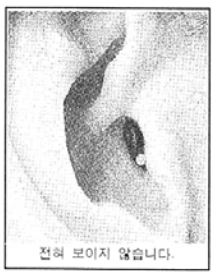
■일 시 : 불기 2540년 5월 9일 (음 3월 22일) 오전10시
■증명법사 : 오고산 큰스님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473-1
■전 화 : (051)721-3167, 722-2570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해광사 주지 합장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 수 후 : 박사과정 연수수료증 수여 (침구,기공)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6월 4일 (화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02) 511-2026 · 2027
511-2028 · 1080
·팩스 (02) 511-1080

STARKEY Labs, Ine
보 청 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STREKEY사와 인체공학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명된 UV BIO특수공법(발명특허 출원 제 95-29591호)으로 제작된 보청기로서 키틴키토산 첨가 (S-HELL/표피)로 건강에너지인 원적외선이 방사되므로 청각및 귀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내장된 인공지능 컴퓨터 회로에 의해 더욱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는 최첨단 미래형 보청기 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전달하는 STARKEY보청기

이런 점이 다릅니다.
1.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산 조립품의 1/2정도)
2.신경성 난청 및 귀울림에 큰 도움이 됩니다.
3.잡음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4.알레르기와 이물감을 최대한 감소 시켰습니다.
5.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6.밧데리 소모량이 적어 경제적

▶국산 조립품이 아닌 수입 완제품만 취급합니다.
▶잘맞지 않을시 언제라도 교환 제작해드립니다.
▶출장 주문제작 판매도 해드립니다.
▶신용카드및 장기할부 판매합니다.
▶국적과 상품의 상표를 꼭 확인 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명품만 취급하는 한미보청기

(스님 및 불교 신자님께는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수입품 전문 회사 한미보청기
상담전화 (051) 803-9009, 817-9118/9 (야) 516-3725
(서면로타리 제일은행옆, 주차는 바로 옆 평화은행)

高級 普珥茶
(고급 보이차)

중국 운남성 서쌍판납 맹해 차청 산품 고급 보이차를 중국 차 진출구 총공사와 한국 독점판매 계약!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 보이현의 서쌍판납(西雙版納) 맹해(孟海) 차청(茶廳)에서 생산되는 발효차로서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차의 향취가 더욱 더 깊어지는 고급차입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지에서는 콜레스테롤 제거 및 항암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공식차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정식 수입된 본 제품(200g)을 스님들과 차를 애용하시는 불자님들께 저렴하게 공급할까 합니다.



구입내용
※보이차 200g1박스(10박스 이상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직접 택배해 드립니다)
※구입처
부산(051)463-7949 대구(053)471-7956 (053)958-5028
서울(02)529-2633 양산(0523)387-9902

중국화평 국제여유공사 부산사무소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58〉

諸賢頌句 (제현송구) ⑤

若能閉口深藏舌 便是安身第一方
약능폐구심장설 변시안신제일방
色身健康莫貪眠
색신건강막탐면

만약 능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곧 이것이 몸을 편케하는 제일 방편이니라, 색신이 건강할때 잠자기를 탐하지 말라

作務辛勤要向前
작무신근요향전
不見碓坊盧行者 祖師衣鉢是渠傳
불견대방노행자 조사의발시거전

힘써 부지런히 앞을 보고 나갈지어다 노행자(육조)가 방아찧는 것(허리에 돌매달고 찧으며 부지런히 마음공부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조사의 옷과 발우가 이렇게 전해졌느니라

香積廚中好用心 五湖龍象在叢林
향적주중호용심 오호용상재총림
瞻星望月雖辛苦
첨성망월수신고

향 쌓인 부엌중에 좋이 마음쓰고 오호의 용상이 총림중에 있는지라(마음깊이 관하여 온갖보배 꺼내써라. 천변만화하는 나툼이 네마음 가운데 있는지라)
별보고 달봄에 비록 신고가있어도(마음 밝혀 계합하기가 비록 어렵고 힘겹다하나)

須信因深果亦深
수신인심과역심
常住分毫不可偸 日生萬倍恐難酬
상주분호불가유 일생만배공난수

고름지기 믿음의 종자가 깊으면 열매 또한 깊다
상주물을 털끝만큼도 도둑질하지 말라 날마다 일만곱절의 두렵고 어려운 갚음을 낳는다

猪頭驢脚分明見 佛地如今掃未休
저두로각분명견 불지여금소미휴
家事精麁宜愛惜
가사정추의애석

돼지머리 나귀다리가 분명히 보이나니 불지에서 이제금 쓸어내어 쉬게하지 못하는니라(옛날 어떤이가 절의 재물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고 죽어 환생하며 돼지머리 코끼리코, 나귀다리 모양이라 평생을 두고 절땅을 청소케 했어도 다 갚지못함)
집안일의 정밀한 것과 거친일에는 다아끼는 바가있다.

使時須把捉得看
사시수파안정간
莫將恣意胡拋擲 用者須知成者難
막장자의호포척 용자수지성자난
(고로)때에 맞춰 모름지기 안정을 잡아 간할지니(화두를 들고 참구할지니)
제멋대로 노는 뜻을 어찌 잡아 던지려 하지(몰락놓음) 않는가 공부에 마음내는 자가 모름지기 견성한 자의 어려움을 알것이다

諸祭供過要精勤 掃地煎茶莫厭頻
제료공과요정근 소지전다막염반
事衆若能常謹愼
사중약능상근절

여러 요사체에 공양하는 일을 정성껏 부지런히하고 마당쓸고 차 끓이는 일을 싫어하지 말라
만약 대중을 늘 부지런히 간절하게 섬길 수 있으면

身心方是出家人
신심방시출가인
拳手相交不可爲 鹿毫非是出家兒
권수상교불가위 추호비시출가아

"대중을 늘 간절하게 섬길 수 있으면 몸과 마음이 바야흐로 출가한 사람"

몸과 마음이 바야흐로 출가한 사람이니라.
주먹쥐고 팔짱낀채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추호도 이는 출가한 이가 아니다

遭人欺面須指拭 到底饒人不是癡
조인타면수개식 도저요인불시치
出家言行要相應
출가언행요상응

사람들이 침뱉어 놓은 것을 보게되면 모름지기 훔치고 닦아라 행실 곧게 사람들을 요익케함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니라
출가자는 말과 행동이 서로 맞아야 한다.

戰戰常如履薄氷
전전상여리박빙
雖是未除麤與髮 直教去就便如僧
수시미제추여발 직교거취변여승

늘 살얼음 밟는것 같이 두려워하라
비록 이렇게하면 머리와 털을 깎지 않은 사람이라도 바로 그 거취로하여금 스님과 같을 것이다.

龍眼

★ 지상법석

"부처님 가르침대로

운덕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약력
- 40년 경북 울진生
- 63년 동국대 경제학과 졸
- 66년 구인사서 상월조사를은사로 득도
- 천태종 종회의원, 총무원 총무국장·부장 역임
- 80년 이후 총무원장 (현)
- 일본·중국의 천태종과 교류
- 불교방송이사(현)

어수선한 세 속의 삶을 벗어나 산사에 머물고 있다보면 자연현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나 요즈음과 같이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는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순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정법의 또다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가운데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불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현실에서 실감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이 만드는 조화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조화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올바로 닦으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속에서 실감하면서 살아야 하리라

"마음을 올바로 닦아 마음의 소리 듣다보면 부처님 말씀에 다가가게 됩니다"

고 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들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외스러운 것이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자연의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보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다보면 저절로 부처님의 말씀에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자연과 다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행동양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이러한 행동들은 스스로 자신의 업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자신이 지은 인연에 따른 과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행복해 질 수도, 불행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인간에 국한된 문제일 것입니다. 자연에는 이러한 분별이 없으니까요.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불행이라는 구별이 없기에 자연은 행복하다고 즐거워 하거나 불행하다고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인연의 결과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무분별을 배워야 합니다.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소치이며, 인연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인연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고 설하신 바 있습니다. 중생들은 인연법이 얼마나 엄정하게 나타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는 나쁜 결과를 보고서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더듬어 보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일 것입니다. 인연법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왜 자신에게만 이러한 불행이 닥치느냐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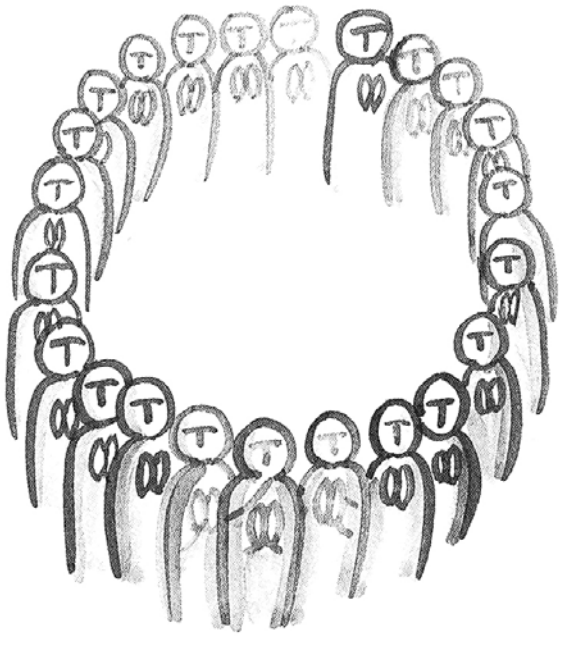
자연과 달리 인간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빌지 않더라도 불자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생동안 이러한 원망과 괴로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닥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정말 괴로움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배울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곤 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난듯하면 자만심을 갖고, 못한 듯 하면 불평하며 괴로워 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자신과 남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자신과 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자랑하지도, 남보다 못났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으며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전도된 가치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가치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⑦③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의 참뜻



일찍이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셨다. 불자라면 누구나 이 가르침을 알기에 우리는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 상대가 누구이든 남녀 노소·출신 성분·승속에 상관 없이 평등과 긍정의 덕담(德談)을 주고 받는다. 다른 종교에서는 좀체로 찾아 보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이 보편화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입에 오른 말'처럼 되었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심오하다.

'당신은 불성으로 가득 찬 존재이니 한시도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일깨움일 수도 있고,

'당신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부처로 거듭 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보십시오.'라는 채근일 수도 있다.

또는 '부처는 한 분 두 분이 아니라는 것', '그대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성이나 역대 조사님의 불성이나 불성은 다 똑같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아무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스스로 해 보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사 말인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지 말고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다.

'나를 믿지 말라.'함은 예배를 부인한 것이요,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하심은 불성의 평등과 성불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진실한 말이며, 후학들에 의해 변조되지 않은 근본의 말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떠한가. 자신이 이미 불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우치려 하기보다는 예배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릇은 이미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빈 그릇인 줄 알고 채워 달라! 채워 달라!를 외치고 있으니 구걸하는 거지 신세를 자초하고 있음이다. 더욱이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우리의 신행은 기복 의주로 흐르고 있다.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다만 입에 발린 소리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위덕을 구족하신 부처님과 동등한 불성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요, 경이로운 소식인 것이다. 도대체 현존의 어떤 종교가 그와 같은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던가. 오직 불교뿐이니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고통 없는 길을 가게끔 인도하고 있다. 나아가 구걸하는 삶이 아닌 자족(自足)한 삶을 이어나갈 길을 열어 보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을 배불리 먹이고도 부족함이 없는 가르침이다. 우려내고 또 우려내도 진한 국물이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이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게 된다. 언제나 그래야 하겠지만 봉축 기간만이라도 인사말의 참뜻을 되새김하면서 가르침에 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불자 여러분, 부디 '성불하십시오'

바로 잡습니다 ••••••••••••

본난의 72번 제목 「'네 말도 옳고 또한 '내 말'도 옳다」는 「'네 말도 옳고 또한 '네 말'도 옳다」의 오식이옵기에 바로 잡습니다.

협찬 : 주인공

지상법석 ★

생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로병사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에서 우리는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보다 잘해야 하고, 출세해야 한다는 식의 경쟁심과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평등보다는 자유가, 상대주의 보다는 절대주의가 사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중심의 가치관이 잘못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전통의 윤리의식이나 드먹관은 구시대의 관습으로 치부되고,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꽃피웠던 불교문화 조차 배척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인연법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부정하면서 미래의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말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사회가 함께하는 공생의 삶을 이끌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은 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건 이상사회건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주변의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탓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자연의 마음입니다. 자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욕심을 버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이 잘 압니다. 이러한 마음은 남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기를 당하고 속는 사람이 생기고, 거짓된 마음으로 대해도 탄로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마음을 제멋대로 굴려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른 모습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고 밖으로 나타난 마음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잘나고, 입은 옷이 아무리 화려할 지라도 평생동안 그 외모를 지니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변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외형적인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외양이 아닌 내면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을 주인으로 한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이 마음은 온 우주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불안하고, 자기만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날뛰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참선이다 염불이다 독경이다 경행이다 하는 수행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가운데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대조사님은 중생들의 마음공부를 위해 관세음보살 염불정진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탁악세에 근기가 낮은 말법중생들은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을 잡기가 어려우므로 염불을 하면서 정신을 통일하는 방법이 오히려 알맞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고, 일반인들이 마음 닦는데 염불만큼 좋은 수행방법은 없습니다. 수행을 해야만 불자는 불자다워지며, 불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수행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불자를 자처하면서도 사찰의 언저리를 서성이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 없죠. 부처님이 일러주신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고 또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불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합니다. 부처님이 용맹정진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듯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가자가 이러할 진대 출가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출가한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수행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종단에 적만 두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종교도 혼란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수록 종교는 제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번치않는 부처님의 정법을 깨치기 위한 수행승들의 피나는 노력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세태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부처님의 법을 배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도가 높은 수행자 한사람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인이 있을 때 불자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 이러한 수행자들을 외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불법을 옹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모두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러한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매일 고통을 되씹으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상 깨달음을 얻겠다는 열린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부딪치는 일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한 번 자기 마음 속의 욕심을 버리고 흥분되고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이때 우리의 조용한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감하며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나와 남 비교하고 남탓하는 분별심 '불행의 씨앗'

내마음 들뜨면 사회도 불안 … "자기마음을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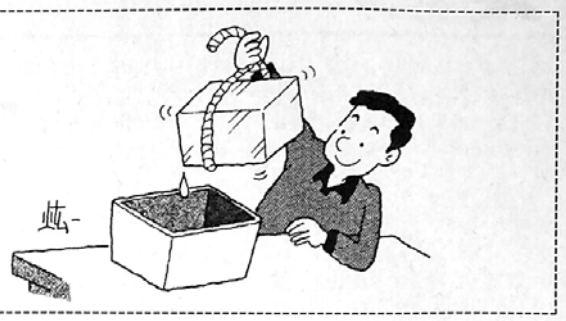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불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몸과 마음닦는 수행으로 정법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버린채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일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로 인한 결과는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결과가 또다른 내일의 결과를 잉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항상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앞의 이익을 좇아 행동합니다.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근은 항상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야기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양심의 눈을 가리게 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못하는 일이 없게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경제사회이고, 경쟁사회인 오늘날 다소 불가피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이 해를 입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회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을 때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9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⑥

반야심경은 오온개공을 설한 후 바로 오온개공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짧은 경전이어서 말을 아껴씀이 분명한데도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같은 뜻의 말을 네번 반복한다.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오온개공 다음 색즉시공이라고 한마디만 덧붙여도 충분할텐데 같은 뜻처럼 들리는 말을 네번 반복한다. 그것도 비록 분별지이긴 하나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에게 네번씩이나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다. 이말외에 다른 말은 경전어디에도 반복되는 말이 없다. 색불이공과 공불이색,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분명히 다른 뜻이거나 꼭 그렇게 네번 반복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므로 물즉 얼음이요 얼음즉 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물이 얼음이 되긴 하지만 얼음이 물이 되는 일이 결코 없다면 물즉 얼음이요 얼음즉 물이라고는 못할 것이다. 이 때는 고작해야 빙불이수(氷不異水) 즉 얼음은 물과 다르지않다는 말을 쓰거나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여 빙출어수(氷出於水)라고 하여 얼음은 물에서 나왔다고 말을 해야할 것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입자-반입자 생성소멸'은 색즉시공 세계

'얼음과 물' 관계로는 '色卽空' 이해 불가능

반야심경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설한다. 물질은 공에서 나왔으므로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으며 다시 물질은 공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경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단언한다. 공에서 물질이 나오고 물질이 공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물질이 그대로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그대로 물질세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실로 엄청난 선언이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의 뜻을 네 마디의 말이 갖는다면 경전은 꼭 그렇게 네 마디의 비슷한 말을 써야할 것이다. 이제 공의 의미를 축소시켜 물리적 진공(眞空) 상태만 생각하고 색과 공의 작용을 살펴보기로하자. 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두마디의 뜻만 살펴보기로 한다. 작용없이 그대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라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훨씬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은 1932년에 반입자(反粒子)를 발견하였다. 물질의 기본을 이루는 입자를 소립자(素粒子)라고 부르는데 여러 종류의 소립자가 있다. 또 모든 종류의 소립자마다 정확히 대응되는 반입자가 있다. 반입자의 물리적 성질은 입자와 정확히 반대가 된다. 예를 들면 전자의 전기량(電氣量)을 "-1"이라고 한다면 반입자인 양전자(陽電子)의 전기량은 "+1"이다. 그리고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은 꼭 같다. 물리적 진공을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여러가지 비유를 들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현대물리학적 설명만 하겠다. 물리적 진공이란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하여 곽차있는 상태이다. 물질이 없는 빈상자를 생각하면 좋다. 아무 것도 없이 텅텅비어있는 그 상자는 사실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결합하여 빈틈없이 차있는 상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빈틈이 없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한다고 해서 모두 진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합한 상태의 에너지가 영(零)보다 크면 관측이 되고 영보다 작으면 즉 에너지의 부호가 음(陰)인 '-'이면 관측되지 않고 진공상태로 보이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물리학이 설명할 수는 없다. 관측사실이 그럴 뿐이다.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하여 음의 에너지를 갖고 빈틈없이 채워진 상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강한 양(陽)의 에너지를 진공에 가하면 진공에서 입자가 나오고 구멍이 뚫리는데 이 구멍이 바로 반입자다. 사실 구멍을 반입자라고 부른 것은 진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뚫어진 구멍을 그대로 반입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쌍으로 나온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만나면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소멸하여 없어진다. 즉 다시 진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입자-반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부른다.

쌍생성과 쌍소멸을 표현하기에 공불이색 색불이공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주요 수록내용
영원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
룸비니동산의 큰 광명
누리에 넘치는 기쁨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의 공덕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나라의 연등행사
민간의 초파일 풍습
오늘날의 연등공양
부록 초파일 봉축발원문과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휘장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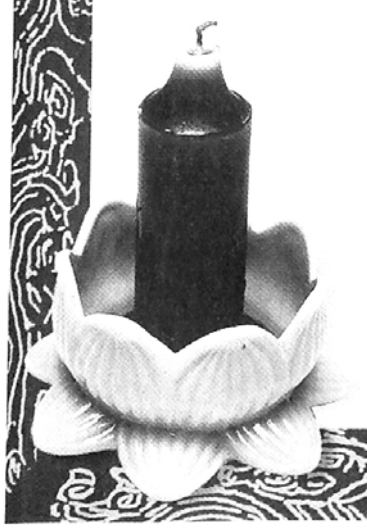
전연색 화보를 곁들여 봉축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해줄
사월 초파일 법보시용 소책자
부처님오신날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해당사찰의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법회식순, 시주자명단 등을 원하시는 대로 인쇄해 드립니다. 별도 인쇄의 부담이 있으므로 주문은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요.

국판 36면 본문 100SW 사용 원색인쇄
법보시 보급특가 : 부당 1,000원

문의처/불교방송 사업부 ☎ (02) 705-5302~6
특판팀 : (02)718-4625~9 부산 : (051)852-2220
서울제1사업소 : (02)706-3502 대구 : (053)755-9537
서울제2사업소 : (012)353-1081 광주 : (062)369-4848
서울제3사업소 : (012)200-7300 원주 : (0371)763-0857
불교방송 매점 : (02)705-5307
전화 문의하시는 사찰에는 견본 1부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호남의 명산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탑사
광주
전화 (0655)33-2900,0303
32-0652,0072

특집

동국대학교 개교 90년

미래동국 첨단사회 이끈다

産學硏단지·불교종합병원 등 '비전동국 100년' 기틀다져

문화·학술·신행등 30여 기념행사…건학이념 구현 다짐

종립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웅비할 도약대를 다지고 있다.

동국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개교 90주년 기념식을 갖고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첨단사회를 이끌어갈 교육환경개선 등 동국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미 추진되고 있는 백주년기념사업과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도 재천명 한다.

동국대가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펼치는 행사는 모두 30여가지에 이른다. 이미 지난 17일 경주캠퍼스에서 봉행된 '동국의 종' 타종식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열릴 기념행사는 동국인의 자부심 고취와 대사회적 학교 이미지 부각을 통한 학교발전의 도약대마련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국대가 마련한 기념행사는 문화·학술·해외교류·봉사·신행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상징 캐릭터를 올 가을에 선보일 계획이다. 또 동국대의 비전과 개교기념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이다. 개교 90주년 행사 가운데 KBS 열린음악회 유치와 세계불교 학술회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윤이상 불교음악의 진수를 맛보일 기념음악제, 영탑공원 사업 관련 세미나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를 새 출발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다짐 아래 동국대가 제시한 동국 100년의 비전은 개교 1백주년이 되는 2천 6년까지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일 각종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교수발전제의 정착과 학부제의 시행,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단기계획과 산학연구단지 건립, 불교종합병원(양·한방 복합)설립의 중기 계획, 또 세계 1백대 대학으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의 실현에 매진한다는 것이 학교측의 포부다. 통일시대 대학타운 건립, 영탑공원 조성사업,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의 구체화, 평생교육 체제 실현과 자비실천 봉사인력 양성,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등도 동국 100년 비전의 주요 사안들이다.

이미 동국대는 학교발전의 추진방향과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제3캠퍼스, 경영합리화, 양·한방종합병원설립등이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이들 사업은 이미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백 30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동국대는 98년까지 1천억원, 2천6년까지 3천억원의 조성계획도 학교구성원과 동문들의 호응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임연태 기자



◇개교 9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은 올 한해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며 동국 1백년 비전을 제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경주캠퍼스에서 봉행된 '동국의 종' 타종식.

인터뷰

송석구 총장



열린교육 참사람 육성

"동국대 발전은 불국토건설 초석입니다"

'후원의밤' 등 각종 행사로 동국가족 결속

국내외에 학교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동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송석구 총장은 "동국인은 누구나 자비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체감을 통해 삶의 질을 높혀가는 참사람들"임을 강조한다. "개교 90주년을 계기로 동국 100년을 향한 비전을 실현 시키려는 다짐으로 마음을 응집시켜 동국인 모두가 학교발전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교 1백주년을 맞을 2006년까지를 목표로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추진하고 계시는데 향후 10년간 사업들을 지속하는과정에는 많은 난관도 있으리라 봅니다.

▲개교 9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재반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사업이 많다는 것이 곧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학교의 발전이 불교의 발전'이라는 대의로 귀일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난관이 재정의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재단의 의지력과 학교발전을 염원하는 동국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질 불교병원의 설립은 중요한 포교사업이자 수익사업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통일시대 대학타운 역시 우리대학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교와 구성원들의 발전의지가 강하면 강할 수록 사업의 추진은 용이해 지는 것이라 믿으며 '후원의 밤' 등 행사를 통해 동국가족을 결속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계획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나라의 학자라도 한국의 동국대학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미 해외의 여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 교환교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공에 관계없이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교대학을 불교학부로 개편해서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불교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학생들을 폭넓게 수용 불교학의 최대산실로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립대학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해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종단을 배제한 학교의 발전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간 종단에서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발전과 불교의 발전이 하나의 맥락임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학교와 종단의 관계는 매우 발전적이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자구력을 가지고 발전의지를 키워 가는 만큼 종단의 협조와 지원도 증폭되리라 봅니다.

-야구부가 96 봄철대학리그전에서 우승을 함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냈는데 체육분야의 육성도 학교 발전의 큰 몫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지난해부터 구기 3종목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을 해 이번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정상궤도에 오르리라고 봅니다. 체육동국의 옛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동국가족의 자긍심 고취의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불자들과 동국인들을 위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제 동국대학은 한국불교의 과거 2천년을 미래의 2천년으로 비약시키려는 도약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불교신행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구성원과 동문 종단 스님들 전 불자님들이 불교발전의 디딤돌이 될 동국대학의 발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



◇무한경쟁시대 대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동국대는 컴퓨터·외국어 교육을 전교생의 전공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어학실습실에서 외국어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교육개혁 박람회 참가

7월20일부터 8월 2일까지

'동국 100년·비전 2006년' 주제로

학점은행제등 평생교육정책 홍보

종립 동국대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동안 교육부가 주최하고 KBS 문화사업단이 주관해 KOEX(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서 열리는 '교육개혁박람회'에 참가한다. 전국 20여개 대학과 15개 교육청, 16개 교육산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교육개혁박람회에 동국대는 6개부스를 마련하여 개교 90주년과 2006년에 맞게될 개교 1백주년을 계기로 건학이념, 역사, 교육목표, 미래에 대한 비전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내용을 대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동국 100년-비전 2006년'을 주제로 멀티비전·컴퓨터·스크린·책자자료 및 패널 등을 통해 교육개혁프로그램및 사례, 대학현황, 입시정책, 97학년도 입학안내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국대가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개혁내용은 학부제 시행, 3학기제 도입, 1년 조기졸업, 3개 전공학위 취득, 국내외 대학 1년수학가능, 등록금 차등제 등 참사람을 만드는 열린교육제도가 특징이다. 학부제는 총 97개학과 모집단위를 19개학부 2계열 28개 학과로 통합모집하며 계열별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재학중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학문욕구를 충족시켜 학과선택의 극대화를 통한 진로를 확대하는데 있다. 또 재학중 3개전공을 취득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도, 6학기만에 졸업할 수 있는 1년 조기졸업제도, 여름학기를 활성화하는 3학기제도를 시행한다. 지식과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MS인증 교육기관 협정을 체결하여 컴퓨터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MS인증 전문가 자격증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국내외 타대학에서 1년간 수학 가능과 방학중 단기 외국연수의 학점인정 그리고 교양선택을 늘리기 위하여 전공필수제도를 폐지하는 전공학점 취득제도를 운용하여 졸업학점의 4분의 1정도의 최소전공학점을 이수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이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위해 98년부터 전국대학 최초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는 취업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재입학하여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추가로 선택해 졸업토록하는 제도이다. 동국대는 선진교육개혁의 내용을 알리는 이 박람회 참가준비를 위해 자문위원회와 기획추진팀을 구성하는등 관련업무를 서두르고 있다.

김원우 기지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한정보급!

팔만대장경을 아십니까 ?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의 총칭으로 경전, 율律, 논술의 삼장三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律이란 불교도의 생활규범이며, 논술은 경과 율에 대한 조사들의 논문입니다.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행된 구판舊板 대장경은 1011년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087년까지 무려 칠십육년에 걸쳐 아루어졌는데, 중국의 장경에 견주어 그 우열으로서는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八公山 부인사符仁寺에 봉안된 이 구판 대장경은 고종 19년인 1232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그만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 년 뒤인 12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불사를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되니, 십육 년에 걸쳐 이 큰 불사의 결실이 바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모셨으나 폐구의 노약질이 심해지자 서울의 지천사支天寺에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태조임금 때인 139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모신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장경 판수가 팔만여 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했을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르칠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용례대로, 가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품 복제경판을 보급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명이 모여져야 가능합니다.



■ 가로 69.5cm, 세로 23.9cm로 원본과 같은 크기 입니다.
품위있는 구양순체에 원판각인상태 그대로의 A형과 금박을 입힌 B형 두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판을 구입하시는 분에는 반야심경원판복각본의 탁본 1매와 보증서를 드립니다.

살아숨쉬는 역사를 소장하십시오

세계문화재 팔만대장경을 소장하시는 분은 품위있고 편안한 만족과 함께 21세기대장경을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문화인의 긍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은둘리지않는 마음의 뜻대로 삼으십시오

팔만대장경에는 무력앞에서도 꺽이지않은 조상의 고귀한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불굴의 호국정신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800년전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 정신이 한자 한자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진품복제경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 반야심경
크기 : 원판의 크기와 동일 (가로 69.5cm, 세로 23.9cm)
재질 : EPOXY
서체 : 구양순체
가격 : ₩200,000
제작 : 고려대장경 연구소
구입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

동국대학교 개교 90년

특집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치사



"불교정신 구현위해 동국중흥 동참합시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아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구한말 불교계 선각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이래 한국현대사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교의 일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한 종단과 역대 이사장 역대총장 교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어린 봉사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고해보면 우리 동국이 개교하던 1900년대 초에는 일제를 위시하여 세계의 열강들이 개화를 빌미로 우리 한반도에 침투하기 시작한 전환기로서 국운은 쇠퇴하고 한국불교 또한 큰 시련에 직면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나라를 올바로 구하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자각과 신념으로 불교계의 대덕들이 정재를 모아 명진학교를 세운것이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태로서 이는 당시 불교계는 물론 우리민족에게 큰 축복과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불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교한 우리 동국이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항일운동 등으로 세번이나 폐교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나라의 운명과 같이 6.25, 4.19, 5.16, 10.26 혹은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명암 속에서 우리 동국은 많은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며 오늘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이는 실로 동국인 모두의 의지와 애교심의 승리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은 우리 동국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교육개혁을 통하여 세계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해답을 무엇보다 불교정신의 올바른 구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대학이 가장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국대학교야말로 1천해넉년 동안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주도해 온 가장 전통적 종교인 불교를 토대로 학문과 인격을 도야해 온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며 곧 세계적인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국은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본교발전에 지대한 권력과 진취적 기상을 지니신 송석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과 창의적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음은 우리 동국의 중흥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구단지 설립과 불교종합병원 등의 건립사업이야말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남북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적사업이라고 자부하면서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 구성원의 진지한 노력 못지 않게 인화와 결속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교 1백주년을 앞둔 우리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 재단 대학은 물론 동문 재학생 모두가 동국발전의 주체요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부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정성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헌신적으로 동참할 때 소기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단으로서도 동국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가능한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국발전을 위한 한 길을 걸으시어 30년 20년 10년의 장기근속 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과 특별학술연구 및 공로표창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도 충심으로 치하를 보내면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통일시대 대비 교육개선 '박차'

중립 동국대학이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을 슬로건으로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교 90주년을 맞아 내놓은 동국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통일시대 대학타운건설과 평생교육체제 실현, 일류고등교육의 도량 캠퍼스별 특성화계획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에서 의미하는 참사람이란 △창조력 있는 사람 △자비의 실천으로 봉사하는 사람 △사색하는 사람 △자신의 적성과 희망으로 전공을 선택한 전인적 전문가 △외국어 컴퓨터에 능통한 신세대 지식인 △즐겁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인 △세계를 책임지는 민족지성 등의 여건을 갖춘 사람이다.

다시말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불교적 인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21세기형 지성인을 기른다는 것이 참사람 육성의 기본틀인 셈이다. '참사람'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진인(眞人)에서 따온 것으로 자성을 밝혀 시대를 일깨우는 지성적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또 참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동국대가 기획하는 열린교육의 방안은 최고의 교육·연구시스템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 행정전문화 및 평생교육체제, 자비실천 봉사 인력양성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학교측은 금년부터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다전공 복합학부 연구의 현실화, 교수대 학생 비율 1:20 조정, 석좌교수 초빙, 교육 연구 행정 종합지원 전산망 구축, 도서관 전산화 완성, 각종 교육 연구 지원체제 구축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국대는 새로운 교육환경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 경주, 제3 캠퍼스를 특성화시킬 방침도 세우고 있다.

〈캠퍼스 특성화〉

서울 — 인문과학
경주 — 민족문화
제3 — 의료·산업



◇통일시대를 대비해 조성될 30만평규모의 대학타운 조감도.

학문탐구·과학향상 지원강화 '21세기 참사람' 배출

서울캠퍼스는 인문과학과 문화·예술의 교육과 발전을 핵심으로 하고 경주캠퍼스는 민족문화·지역발전의 견인차 양성도량으로, 제3 캠퍼스는 과학·기술과 의료봉사의 교육 현장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제3 캠퍼스는 1차적으로 양·한방 복합 종합병원을 1천병상 규모로 건립하고 2차적으로 산학연구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산학연구단지란 각각의 분야에 유관기업과 협동체제를 구축해 교육 연구 개발의 산실을 이루는 특정화된 연구시설이다. 이를위해 학교측은 이미 컴퓨터 정보산업분야의 협동체계를 삼성데이타시스템, 데이콤, 마이크로소프트사등과 지난해에 협정했으며 멀티미디어분야는 중원미디어와 협정절차를 마쳤다. 화학분야는 금강 고려화학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중이며 기타분야에 대한 대상기업선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교육과 과학기술분야 교육의 토대마련을 통한 산학협동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3십만평 규모의 통일시대 대학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이 동국대의 복안이다. 대학타운이란 일정지역이 대학을 중심으로 울타리없이 연계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 산업개발, 복지사업, 주민 편의시설, 문화시설등이 함께 연계된 미래형 도시구조다.

한편, 평생교육체제 실현과 자비실천 봉사인력 양성계획은 학점은행제도와 등록금 차등제(98년부터 실시) 사회교육기관 운영, 사회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를 위한 교양·문화·예술강좌등으로 짜여져있다. 특히 사회교육기관의 운영은 사회교육원, 컴퓨터교육원을 올해 개원하고 불교통신대학을 내년부터 불교 TV와 협력해 시행하는등 교육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동국대 개교 90주년 주요행사

기념법회
- 일시 : 5월6일 오후 4시
- 장소 : 본교 정각원 법당
- 내용 : 시인 고은선생을 초청해 '불교문학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자매대학 총장초청
- 일시 : 5월6일~8일
- 초청대상 대학 : 미시간 주립대 메인주립대 뉴욕주립대(미국) 교토불교대 구택대 용곡대 대정대 동양대(일본) 서북대 중앙희극학원(중국) 레겐스부르크대(독일)



기념공연 KBS 열린음악회
- 일시 : 5월7일 오후 6시~9시
- 장소 :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
- 출연 : 송창식 태진아 심수봉 해바라기 박정운 테너 김영환 등
- 방송 : 6월2일 입요일 오후 6시30분 KBS 제1TV

동국대 소장 국보보물전
- 기간 : 5월6일~17일
- 장소 : 불교박물관 2층 특설전시장
- 전시내용 : 박물관 및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212호 국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등 50여점이 공개된다.



중국 민속공예전
- 기간 : 5월6일~17일
- 장소 : 학술문화관 전시실

동국인 저작도서전시 및 특별판매
- 기간 : 5월6일~10일
- 장소 : 도서관 앞

윤이상 기념음악제 비천(飛天)
- 일시 및 장소 : 5월15일 오후 7시(여의도 KBS홀) 17일 오후 5시(본교 불상앞)
- 내용 : 1부에서 공연될 윤이상의 작품은 관현악곡 '바라' 가곡 '고풍의상' '그네'와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대왕의 축제' 첼로, 피아노를 위한 '노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중주곡 '심중주' 등이 공연되며 이중 '고풍의상'과 '그네'는 국내에서 처음 연주되는 유고작품이다.

2부에서는 브람스의 관현악곡 '대학축전서곡'을 시작으로 '산아' '오 나의 태양' '그리운 금강산' '밀양아리랑' '시골아가씨' 등이 공연된다.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
- 일시 : 5월29일 오후 6시
- 장소 :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 내용 : 동국대 발전 기금조성에 동참하는 동문 학부모 교직원 학생 각계 인사등이 초청돼 동국 100년의 비약적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다. 다녀쇼와 기금전달 동국비전발표 영상쇼 축하공연등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해양오염 및 환경보존학술심포지움
- 일시 : 5월31일 오전 10시
- 장소 : 학술문화관 중극장
- 주제 : 해양오염 및 환경보전
- 내용 : 해양 기름유출에 관한 현황 법규 정화기술 어민대책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문제등을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경주 남산 살리기 실천대회
- 일시 : 5월26일 오전 9시
- 장소 : 경주남산
- 내용 : 경주불교유적 바로알기 경주 남산 걷기대회 남산 살리기 결의대법회 경주 남산에 관한 학술논문등 자료집 출간

청소년 환경대회
- 일시 : 10월
- 내용 : 1)서울 남산 살리기 실천대회
  - 철조망을 나무 울타리로 바꾸기
  - 남산 걷기대회
  - 남산거리합창제 그림 그리기 글짓기 풍물놀이 등
  - 남산 제대로 알기 퀴즈대회
  2)동국학원 산하 청소년 수계대법회
  3)불교 환경운동 학술행사
  - 환경훼손과 불교문화유산
  - 사찰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보고와 사찰 음식전
  4)음악제
  - MBC '샘이 깊은 물'
  경주 청소년음악제

세계 불교 학술회의
- 일시 : 10월24일~25일
- 장소 : 학술문화관
- 주제 : 21세기 문명과 불교
- 소주제 :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조명
  · 종교다원사회와 불교
  · 사회윤리와 불교
  · 자연환경·생명과 불교
  · 한국불교의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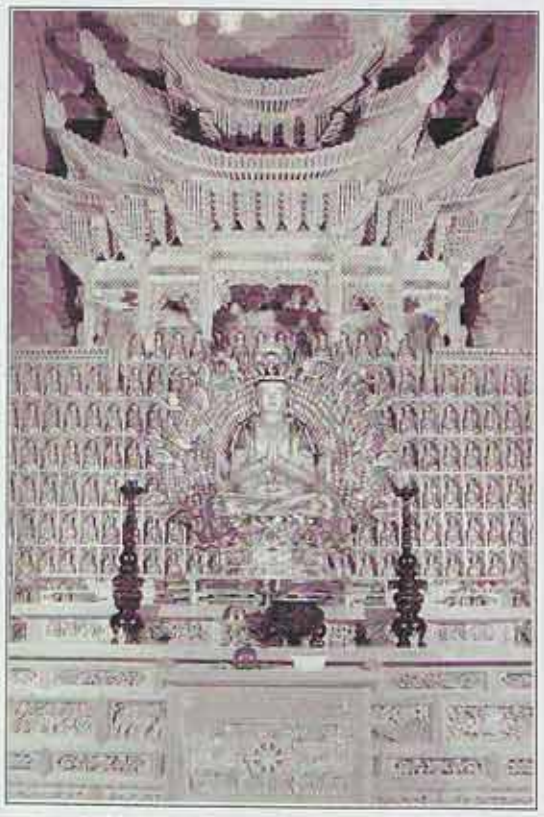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경주)
- 일시 : 9월11일 오후 6시
- 장소 : 경주 콩코드 호텔

국악대음악제
- 일시 : 10월
- 장소 : 미정
- 내용 : 불교전통음악 무용 찬불가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 국악교성곡 등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참사람 열린교육 Book 돌려 보내기

"축" 개교 90주년<1906-1996>

100세 靑年?



전통을 내세워 보수에 빠지지 않고,
나태와 타성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온
진취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느냐에
몹시 고민하고, 개교 90주년의 기쁨보다
개교 100주년의 비전을 생각하는 대학,
드높은 나이와 경륜에 어울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설 다짐을 하는 대학 -
그 이름, 한국의 민족사학 동국대학교입니다

개교 90주년을 맞아 '비전! 동국 100년' 마스타플랜으로
21세기 초일류 대학을 실현하는 동국대학교 -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동국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국내 3대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비전! 동국 100년 마스타플랜

VISION 1 : 참사람 만드는 열린 교육

최고의 교육 • 연구시스템으로 국내 3대 명문사학의 명성을 회복한다

- 최고의 고등교육, 최우수 연구성과
- 경영합리화, 행정전문화, 최선의 서비스
- 평생교육체제 실현, 자비실천 봉사인력 양성

VISION 2 : 동국100년 특성화 캠퍼스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위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실현한다

- 서울캠퍼스 - 인문사회과학 • 연구 집중 캠퍼스
- 경주캠퍼스 - 민족문화 • 지역발전 집중 캠퍼스
- 첨단 과학기술 연구 캠퍼스
  - 통일시대 대학타운 (양 • 한방 종합병원, 산학 연구단지 조성)

VISION 3 : 동국100년 교육투자

다양한 교육 재정사업으로 투자재원 확보

-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 전개
- 연구기금/장학기금/ 발전기금 조성
- 기업체와의 산학협동 전개

90 VISION 2006

ANNIVERSARY 90YEARS

새로운 동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

개교 90주년 기념사업

모든 동국가족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전반기 : 만남과 축제

- **90주년 기념주간 행사 (96. 5. 6 ~ 5. 11)**
- 개교기념식, 기념법회 및 추계식, 기념식수
- 국보 • 보물 귀중본전(박물관 2층 특설전시장)
- KBS 열린음악회(5. 7 화요일, 서울캠퍼스교정)
- 각종 공연 및 전시회
-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 동국의 미래 비전을 함께하는 기금조성 이벤트
- **윤이상 음악회**
- **동국축전(학생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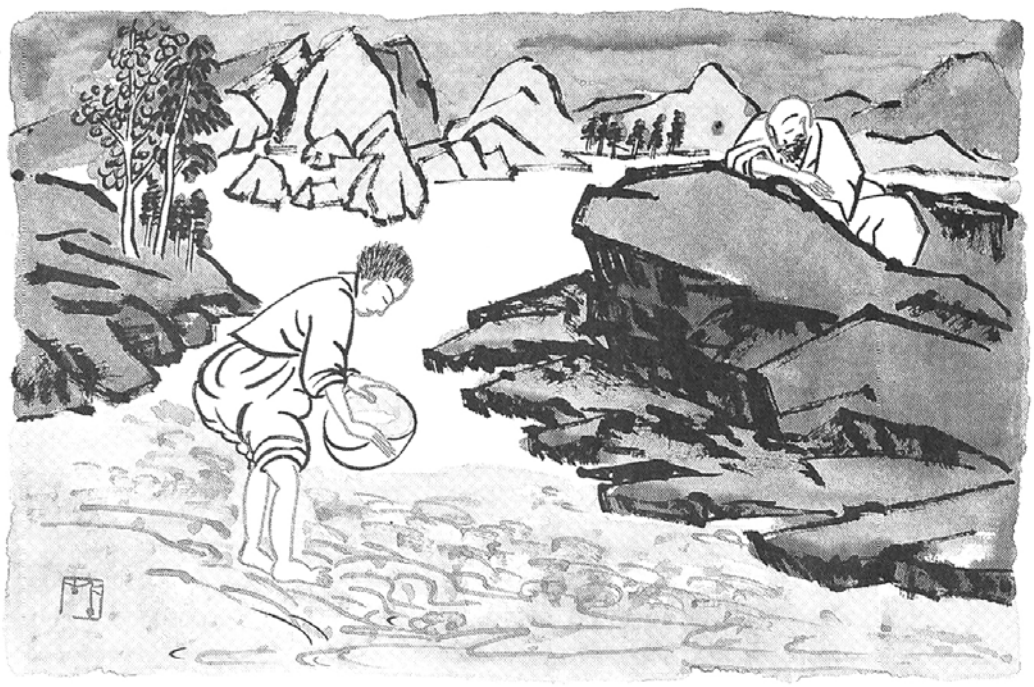
후반기 : 학술과 환경

- **세계불교 학술회의**
- 96. 10. 24 ~ 25일 이틀간
- 주제 : 21세기 문명과 불교
- **한국문학 학술 회의**
- **사회과학 학술 세미나**
- **불교 청소년의 해 기념 청소년 환경대회**
- **국악 대음악제**
- **백상체전**
-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경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고은 불교대하소설



무욕도의 인담과 우녀

무욕도를 전생으로 하고 그곳을 떠난 사람들과 달리 아직껏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인담과 우녀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옛이야기 속의 오누이처럼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인담의 그 젊은 기운도 어느 정도 기울어져서 50세를 넘기고 있었다. 우녀도 무욕도로 오기 전의 그 정신이상 상태가 이제 눈을 씻고도 보이지 않는 수행으로 넘쳐서 40세의 원숙한 여인으로 언듯 광배(光背)까지 서려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정진은 어떤 규칙도 없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인담이 우녀를 가르칠 나위가 아니고 우녀가 인담을 앞질러 이끌어 갈 처지도 아니게 그들의 수준은 마치 짜 맞춘 것처럼 서로 한 경지에 이르렀다.

오십대 인담과 사십에 들어선 우녀는 마치 짜 맞춘듯 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남매같이 부부같이 지냈다

한 동안 무욕도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우세두세할 때에는 우녀의 만만치 않은 위엄에 의해서 이곳의 좌상이었던 인담까지도 우녀의 뜻에 따르는 형편이었다.

그 뒤로 두 사람만이 남겨졌을 때는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일 까닭이 없이 서로의가 좋은 동료로서 굳이 정신의 수준따위에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지 남매와 같기도 하지만 부부와 같기도 하였다.

실지로 이 섬의 산곡대기 토굴이나 그 아래의 별채는 헐리고 본채에서 두사람은 동거하였다. 서로 뼈속의 내력까지 아는 사이이고 서로 마음 속의 동작도 맑은 물속에 헤엄치는 고기들처럼 훤히 짐작하는 사이인데 유난스럽게 음양을 구별할 노릇도 아니어서였는지 그들은 한방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육지의 신도들이야 독실한 몇사람이 이들의 양식과 그밖의 필수품을 대기 위해서 그쪽의 배가 한달에 서너차례 건너오거나 그것도 아닐 경우 인담이 떼배를 저어 다녀오면 되었다.

그런 것 말고는 무욕도는 옛날의 무인도로 있던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이제 파도소리와 파도소리 속의 갈매기 울음소리 따위에 흠뻑 파묻혀서 어떤 인간적인 것도 개입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두 사람도 인간이기보다 이 무인도의 바닷가 바위에 기어오르는 작은 게들과 다름없는 자연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터였다.

그들에게는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저 세상으로 떠난 뒤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힘에 의존할 까닭도 없고 그들 자신의 그때그때에 따라 불이 뜨겁고 물이 젖는 것과 같은 상태의 스스로의 세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바에야 굳이 노자가 나타나 무위를 일컬을 것도 없거니와 공자가 나타나 이름(名)을 내세워 노자의 이름 없음(無名)과 어긋날 것도 없었다.

그래서 무욕도는 자연의 섬이고 그 섬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스승이라면 석가이기보다 자연석가(自然釋迦)인 것이다. 인담도 우녀도 자연으로 깨닫거나 자연으로 그 깨닫음을 버리거나 하면 되었다.

정작 사람들의 체취가 거의 없어진 판이라 바다 전체와 섬 전체가 충분히 살아나서 그 기운으로 인담과 우녀는 지긋이 눈을 감고 수평선 너머의 보이지 않는 배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월조차도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지내는 어느날 인담이 낮잠을 자는데 그 잠깐 사이의 낮잠의 꿈 속에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스승 담인이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한 수행자에게 꿈속에서 맺었던 사자(師資)로써 고려시대의 스승이 나타난 것도 실로 망각 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자연이었던가. 자연오도(自然悟道)였던가.

법명 인담도 스승의 법명 담인을 거꾸로 해서 지어졌던 일조차도 이제는 아무도 알 까닭이 없다.

꿈에 나타난 스승 담인은 지난날 꿈에 나타났던 스승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지난 날에 나타났을 때는 조선반도 중부의 한 군데였으나 이번에 나타난 스승 둘레에는 흰 구름이 움직이는 곳이어서 마치 스승 담인이 그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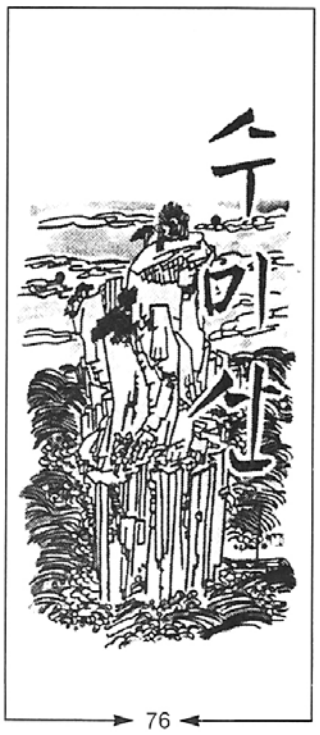
"임춘(林椿)의 후신이 정작 임춘의 시를 그 자신의 전생에서 지은 것도 몰랐거니와 그대가 임춘의 시를 잘 찾아내어 세상에 전한 공덕과 함께 이제 수행의 공덕이 더해졌으니… 그대의 무욕도 인연도 다할만한 때에 이르렀구나."

구름 위에 서있는 것 같은 스승은 그러나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앞뒤의 사설을 생략한 채 할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다.

인담은 그런 스승의 이야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무욕도에 건너온 불이가 임춘의 후신으로 된 것과 인담이 임춘의 시를 암굴 속에서 찾아온 것에 대한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꿈속에서의 인담은 오직 고개를 숙였다가 얼핏 스승 담인의 하심(下心)이 깃들어있는 맑은 모습을 우러러 볼 따름이었다.



"…그렇구나. 임춘의 후신이야 지금쯤은 사바세계의 어딘가에 태어나서 사막을 건너 어느 암굴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그대는 아직도 그대의 거처에서 꾸준하구나. 진실로 갸륵한 것은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스승이시여."

라고 인담이 입을 열었으나 말이 되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도 그대의 거처를 떠날 때에 이르렀구나. …수행하는 이에게는 죽음도 공부이니라."

"…"

"부모와 임금 섬기는 일도 끊어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어찌 출가 사문(沙門)이 되어서도 스승이니 뭐니하고 집착하는가. 마땅히 그대는 나를 잊어라. 이로부터 나를 스승으로 삼는 일은 그동안의 공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일러라. …이제 그대와 함께 살아온 사람과 심신을 함께 하여라."

"스승이시여."

라고 외쳤으나 말이 되어지지 않았다.

스승 담인은 구름 위에 선채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이었다. 인담은 꿈속에서 몇번이고 스승을 불러보았으나 끝내 말이 되지 않은 대신 그 꿈에서 깨어났다.

실로 소중한 꿈이었다. 늦은 봄날의 바위등성이에서 잠들었던 인담의 몸에는 흥건하게 땀이 번져있었다. 바다는 오랫만에 고즈넉하였다. 잔물결은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갈매기가 쉬는 동안인데 갈매기 대신 제비들이 본채의 처마에 집을 짓고 이 섬을 다 차지하고 바다 위를 날아 다니고 있었다.

"수행하는 이에게는 죽음도 공부 … 이제 그대도 …" 꿈속에서 들은 스승의 말을 인담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우녀스님!"이라고 인담이 저쪽 샘물 가까이에 있는 우녀를 불렀다.

두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이였다. 바지 가랑이를 정강이까지 걷어올린 우녀의 종아리가 방금 뽑은 무우처럼 하얗다. 얼굴이야 바다바람에 그을려서 늘 붉으대대하지만 옷 속의 살결은 잘 보호되어 있는 셈이었다.

"나 스승의 꿈을 꾸었소."

이제 그들의 말도 반말에 가까웠다.

"호호. 공부 못한다고 꾸짖으십디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녀도 인담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삭도(朔刀)를 댄지 오래되어 제법 머리가 길어진 데를 한번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실은 나도 아까 앉아서 졸다가 그 육조(六祖)의 무념 가운데 바다 밑 용궁의 꿈을 꾸었지오."

"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심심풀이가 될 일이 생길 모양이군."

"인담스님. 꿈 따위나 가지고 놀지 맙시다. 꿈보다 더 꿈인 것이 이 생시(生時)아닙니까."

"하기는."

"하기는 우리 두사람 금실 좋으라고 다른 도반들 다 떠난 이래로 우리는 너무 심심하게 살아왔어요."

"하기는…"

인담은 우녀의 말이 한 발 앞서는 것이나 즐기며 "하기는…"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게 되었다. 그가 꾼 꿈의 의미가 각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만 우녀의 용궁 꿈 때문에 그만 두었다.

어느덧 봄날이라 덧없이 하루가 다하였다. 해가 수평선 밑으로 붉은 빛을 쏟으면서 빠진 뒤의 어스름도 곧 새로운 어둠에 먹혀버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가벼운 저녁 공양을 마치고 밤새도록 긴 꿈이나 꾸어보자듯이 밤 선정(禪定)은 그만두고 잠자리를 폈다.

아랫목에 우녀가 눕고 윗목에 인담이 누웠다. 언제나처럼.

그들은 이따금 서로 몸이 닿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만의 밤일진대 몸이 닿으면 어떻고 몸이 닿지 않으면 어떤 것인가. 이미 그런 일에 굳이 예민할 것도 없게 서로 낯익은 상태였다.

인담의 몸이 찰 때는 아예 우녀가 그를 껴안아 찬 기운을 녹여주는 일도 있었고 한겨울의 추운 날은 숫제 한 이불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합해서 자야 하였다.

그러나 늘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오늘밤도 그들은 따로 따로 일찍 잠을 청하였다.

다음날 우녀가 먼저 밖에 나갔다. 어쩌다가 새벽 예불시간을 지나치도록 잠을 잤던 것이다.

이런 일을 두 사람의 신심이 없어졌다던가 수행의 뜻이 멀리 떠나갔다던가 하고 말하기보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어느덧 몸의 상태에 맡겨져 있었다고 말해야 옳았다.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 몸에 의해서 사는 일이야말로 파격이었다. 마음의 가문(家門)에서 사대(四大)가 모여 만들어진 덧없는 것, 허망한 것으로서의 몸이 시키는대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배교(背敎)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농아기르는 터였다. 그러므로 마음의 가문은 과연 무애의 가문이기도 하였다.

우녀에 뒤따라 인담도 느적느적 잠자리를 치우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어제까지 하늘 깊숙히까지 맑았던 날씨가 잔뜩 흐려졌다. 구름들이 마치 무욕도 꼭대기까지 물을 듯이 내려와 있었다.

"하늘도 심심풀이로 공부하다가 때려치운 모양이오. 그래서 구름이나 어질러 놓고 있는게지"라고 인담이 한마디 거냈다.

그런 혼잣말을 그것대로 두지 않고 있다가 우녀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소리인지 그 자신도 혼잣말을 하는지 모르게 한마디 거냈다.

"하늘이 저런걸 보니 땅이나 바다가 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림 · 조향숙

성하출판 TEL : 778-6826~7 FAX :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효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침묵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히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진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기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사찰풍수는 하화중생 방편"

'제왕의 길' '한국풍수…' '도선국사…' 등 서점마다 명당차지

권선징악 생활윤리로 환경파괴등에 경고
과학·철학·환경학 토대 심층연구 필요

"나는 용맹스럽게 기도했고 전국을 떠돌며 절을 세우거나 탑을 세워 이 땅을 비보(裨補)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화평한 불국토로 가꾸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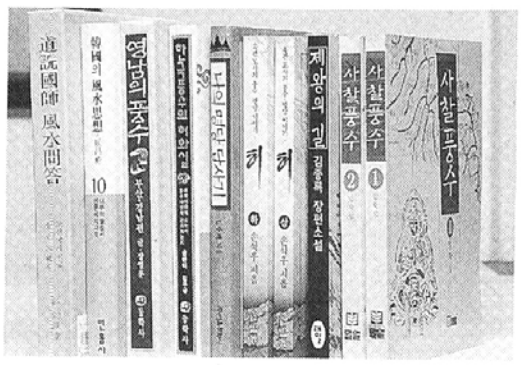
도선국사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장편소설 〈제왕의 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최근들어 풍수를 다룬 이같은 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김종록의 〈제왕의 길〉과 김광제의 〈나의 명당 답사기〉, 장영훈의 〈영남의 풍수〉, 김두규의 〈한국 풍수의 허와 실〉, 임학섭의 〈사찰풍수〉, 정관도의 〈도선국사 풍수문답〉 등이 그것.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풍수지리서들이 묘자리(陰宅)를 중심으로 명당자리 찾기에 몰두하는 반면, 사찰풍수를 다룬 책들은 서기(瑞氣)를 북돋우고 악기(惡氣)를 누르는 비보책(裨補策)으로 국토 전체를 불국토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찰풍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기복보다는 적극적인 불국토의 실현을 통한 국가적인 복리를 강조한다.

〈사찰풍수〉의 저자 임학섭씨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서 지어진 이유는 산천의 쇠한 기운을 보익하여 국가의 기틀을 튼튼하게 한다는 산천비보의 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땅을 다스리는 치지법(治地法)에 따라 비보책을 쓴다면 지상에 나쁜 땅이란 없으며 발길 닿는곳마다 길지(吉地)요, 복지(福地)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모두 도선국사가 강조한 비보설에 따르고 있다. 도선국사는 이 나라 산천을 비보하는데 부처님법을 빌렸으며, 산천의 지세를 보고 결정한 자리에 절이나 탑 등의 비보사탑(裨補寺塔)을 무수히 세워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방편으로 활용했다. 도선국사가 남긴 "산천비보의 일환으로 절을 세우고 탑을 세워 얻어진 풍수의 국가적 이익이 선리(禪理)의 정묘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풍수가 중생구제의 한 방편이었으며, 그가 술승이 아닌 선승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풍수의 허와 실〉의 저자인 김두규교수(우석대)는 "풍수지리는 고대의 과학 철학 미학 윤리학 환경학적 개념을 토대로 한 종합학문이었다"며 환경에 적응하는 한국인의 삶과 죽음의 논리를 통해 우리 땅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했다. 김교수는 "국가나 대학 등 연구단체의 지원하에 풍수지리가 연구된다면 풍수지리에 기생하는 각종 술수나 미신, 허황된 이야기들이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풍수지리가 학문의 대상으로 선을 보인 것은 1984년 서울대 최창조교수의 〈한국의 풍수사상〉이 나오고 부터였다. 1987년에는 '풍수지리설의 건축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 박시익 박사에 의해 출간됐고, 1990년에는 이몽일씨가 박사학위논문으로 '한국풍수사상사'를 써 풍수지리를 하나의 독창적인 학문분야로 연구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풍수의 비조인 도선국사와 중흥조인 무학대사를 낳은 불교계는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전일적 환경론과 유기체적 우주관, 권선징악의 생활윤리 등을 보여주는 풍수는 환경파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새로운 환경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김재경 기자

출판화제



동화 '부처님의 연꽃들' 6권 나와

육바라밀 항목별정리

도서출판 하나원(대표 정장복)이 어린이날을 맞아 동화책 〈부처님의 연꽃들〉 1질 6권을 펴냈다.

네푸는 마음(보시), 계율을 지키는 마음(지계), 인내하는 마음(인욕), 노력하는 마음(정진), 깨끗한 마음(선정), 슬기로운 마음(반야) 등 육바라밀의 각 항목을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용어로 풀이했다. 글은 아동문학가 이슬기씨(한국불교아동문학회 이사)가, 그림은 이미라 김태란 고혜진 조명화씨 등이 맡았고 감수는 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송묵스님(동원정사 주지)이 맡았다.

각 항목의 내용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생담 등의 일화를 인용했으며, 첫장에는 '아빠 엄마와 함께' 코너를 마련, 어린이 불교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준다.

하나원은 이밖에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10대제자, 불교예절, 어린이 5계, 팔정도 등의 유아용 동화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동화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생용은 삼국시대 대덕고승전, 경전 해석, 본생담 설화, 불교문화유적 시리즈 등을 불교아동문학회와 함께 준비중이다.

'선과 현대신학' 등 3권 동시 출간

아베마사오 논문 故 변선환목사 엮어
종교다원성 인정 인류공동진리 탐구

대원정사(대표 장상건)는 최근 '불교와 기독교 대화 총서' 제 5, 6, 7권 〈선과 현대철학〉 〈선과 현대신학〉 〈선과 종교철학〉을 동시에 발간했다.

3년전부터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공과 하나님〉 등 4권의 '불교와 기독교 대화 총서'를 내면서 종교간의 상호이해와 대화에 앞장서 온 대원정사가 펴낸 이번 대화총서 3권은 모두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 아베 마사오(阿部正雄; 하와이대 교수)가 20여년간 발표한 논문들을 지난해 타계한 변선환목사가 엮었다. 엮은이의 말은 故 변선환목사의 미망인 신옥희교수(이대 철학과)가 썼다.

〈선과 현대철학〉은 서양사상의 흐름과 관련지어 불교의 독특한 위치를 현대의 언어로 재조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의 현대철학화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선과 현대신학〉은 불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물어가면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기 비움의 하나님과 역동적 공'이란 논문은 발표되자 마자 서양의 신학자, 종교학자, 철학자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선과 종교철학〉은 불교의 현대철학화를 통한 새로운 종교철학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아베 교수는 스즈끼 다이세쯔 박사 사후 서양에 선을 소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교토학파의 일원으로서 불교와 서양사상의 비교 연구와 불교-기독교의 대화에 창조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각국을 순회하며 강연하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장을 역임했던 故 변선환목사는 기독교의 배타적이고 포괄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각 종교의 다원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상호개혁을 일깨우는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다가 이 책을 엮는 과정에서 타계했다.


◇아베교수


◇故 변선환목사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연시안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 냄
2	능엄경 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3	기도	일 타	효 림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5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원한	우리출판사
6	업보	혜 범	밀 알
7	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8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9	부처님 말씀	성 열	현암사
10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능 가	대흥기획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불교의 이해와 실천 2(이중표 저)=불교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전남대 이중표교수의 '불교의 현대적 이해' 강의록을 단행본으로 엮은 불교입문서. 부처님 근본교설이 설해져 있는 〈아함경〉과 육바라밀이 담겨 있는 〈육도집경(六度集經)〉을 중심으로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대원정사 9천5백원〉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의 문화유산(송석상·이강승 엮음)=충남도 정책보좌관인 송석상씨와 충남대 고고학과 이강승교수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문화재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기본적인 입문서가, 문화유적을 돌러 보고자 하는 이들에겐 훌륭한 답사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학연문화사 1만원〉

▲신봉승의 조선사 나들이(신봉승 저)=한국역사문학연구소를 개설, 사료를 정리 분석하며 대하소설 〈조선왕조 오백년〉(48권) 〈소설 한명회〉(7권) 〈찬란한 여명〉(5권) 등을 발표해 온 작가 신봉승씨(공연윤리위 부위원장)가 조선사의 뒷얘기를 에세이식으로 엮으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 〈답게 1만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백운화상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직지심경(直指心經)〉으로 더 알려져 있지만 원래의 책 이름은 〈백운화상초록(白雲和尙抄錄)직지심체요절〉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직지〉라고 쓰여 있고, 〈직지심체〉, 〈심요(心要)〉라고도 부른다. 불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경은 아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에 백운화상(1299~1375)이 불교의 교리를 평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鑄字印施)' 불전이다.

필자가 이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85년 청주시 문화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주시 운천동 일대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하던중 〈직지심체요절〉을 찍어낸 흥덕사 터가 발견되면서 부터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필자는 흥덕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인쇄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지난 92년 3월에 박물관 개관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이어 청주 관음사 주지이신 장이두스님의 도움으로 영인본과 번역본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 책의 내용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어록중에서 선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선문답, 시, 편지, 수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오등회원(五燈會元)〉 등의 문헌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요체를 편성해 〈직지심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선종의 오도(悟道)를 보여주는 말로서, 좌선에 의지해서 바로 스스로의 심성을 꿰뚫어 볼 때 본래의 면목이 나타나 제불(諸佛)의 묘한 경지에 이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원래 하나이므로 부처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며,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스스로의 심성에 대한 지견(知見)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佛如衆生無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며(色空不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生死不二)'는 내용의 〈지공화상 14송〉등 선의 핵심을 밝힌 명문으로 가득차 있다. 이 책 마지막장에는 인쇄시기, 인쇄장소, 인쇄방법(금속활자 인쇄)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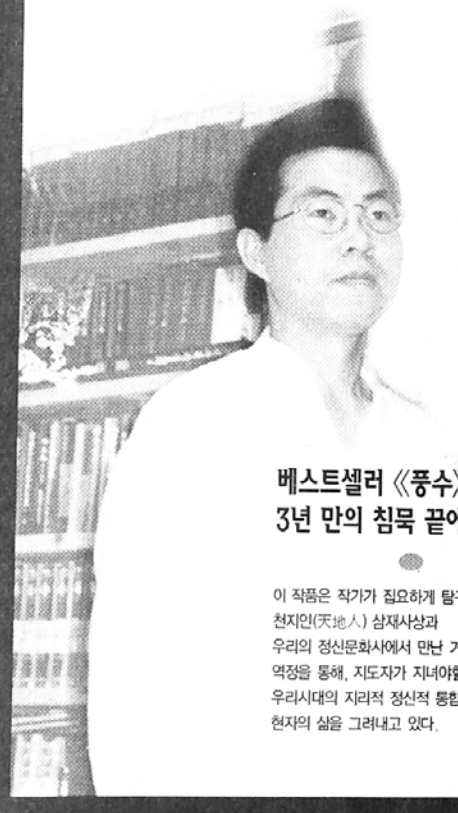
김광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禪 핵심 밝힌 조사어록 가득
"자기마음에서 '부처' 찾아라"

백운화상의 법명은 경한(景閑)이며 고려말 충렬왕때 전라도 고부에서 출생하고 원나라 임제종의 법을 얻고 귀국해 해주 신광사에서 종풍을 떨쳤다. 75세가 되는 해에 〈직지심체요절〉을 초록하고 여주 취암사에서 79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지난 72년 '세계도서의 해' 기념행사인 '책의 역사' 전시회에 출품돼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책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찍었다는 〈세계의 심판〉보다도 무려 70여년이나 빠른 것으로 우리 선조들이 인류 문화사상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전국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김 종 록 장 편 소 설

제왕의 길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보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베스트셀러 《풍수》의 작가 김종록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힘찬 소설!

이 작품은 작가가 집요하게 탐구해가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과
우리의 정신문화사에서 만난 거인 도선국사의
역정을 통해, 지도자가 지녀야할 미덕과
우리시대의 지리적 정신적 통합의 논리와
현자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쇠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한강토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낼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유물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되 서로
어그러짐이나 축남이 없었던 대인(大人)이었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는
대당 유학승이 행세하던 시절 원효성사가 그러했듯
이 땅에서 득도하여 비유비불비선의 해동 지성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살았던 신라 말이나 오늘 우리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여
천년 전의 그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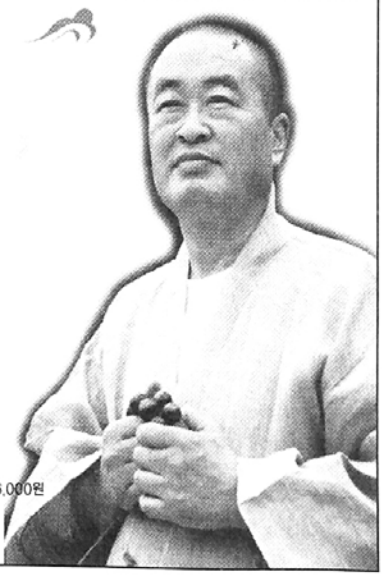


신국판/328쪽/6 800원

삼중스님 에세이

걸망에서 배운 인생

어머니의 애잔한 눈길은 아직 가슴에 있고,
속세의 어린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신국판/320면/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정광사 목아박물관

봉축 문화마당 '눈길'

한곳서 음악·전시·공연·강연등 대중과 함께 숨쉬는 퍼포먼스

단일행사에서 탈피해 음악 문학 조형예술 연극 전시 등 여러 장르들이 어우러져 총합 예술로써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를 퍼포먼스化 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봉축행사는 음악회 전시회 백일장을 여는 단일 행사가 주를 이뤘고 참가한 대중들도 수동적으로 보고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행사를 지양하고 공연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느낌을 공유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 정광사(주지 송암)와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이다.

정광사(02-598-5291)는 오는 23일·24일 도솔산 도안사(0334-676-8700)에서 파라미타 축전을 개최한다. 23일 저녁 8시 국악인 안숙선씨의 '부처님 일대기' 관소리 테이프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행사는 9시 황청원 시인의 사회로 막이 오른다. 대중과 함께 파라미타 합창단이 찬불가를 부르면 이어 박찬수씨의 '나는 불모 반야바라밀이다' 주제의 강연과 불상조각 시연이 있게된다. 조각이 실시되는 동안 참가대중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부처님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다. 부처님이 탄생되면 이를 축하하여 '성인중의 성인 이시여' 주제로 김선미씨(창무회장)의 승무가 펼쳐진다. 즉흥연주로 유명한 임동창씨가 음악모임 쟁이골 사람들과 함께 합주를 벌이며 봉축전야를 화려하게 장엄한다. 부처님 오신날인 24일 오전에는 법요식과 시낭송회와 합창, 육불식이 봉행된다. 오후 3시부터는 고은 시인의 특별강연과 인근 죽산초등학교 불자들의 고적대 연주가 깜찍하게 벌어지며 6시부터는 송암 주지스님과 함께 점등, 인근 주민들이 모두 모여 연등을 들고 농악대를 따라 용설호를 돌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게 된다.

여주에 위치한 목아불교박물관(0337-85-9952)은 개관 3주년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오는 15일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목아와 함께 장엄한마당'을 개최한다. 박물관 잔디밭에서 2시간 동안 벌어지는 장엄한마당은 음악 전시 국악 조각 탈춤 음식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벤트 행사. 임동창씨의 피아노 연주가 벌어지는 가운데 소리꾼 장사익씨가 창을 하고 살풀이 춤이 이어지며 굿패 동남풍이 신나는 사물놀이로 흥을 돋군다. 한혜자씨가 창으로 찬불가를 부르는 사이 불모 박찬수씨가 아사달 탈을 쓰고 북을 치면서 나타난다. 관중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춤사위속에 박찬수씨는 부처님을 조각한다. 경내에서는 박찬갑씨의 조각과 설치물이 전시되고 음식도 차려져 신나는 장엄 한마당이 펼쳐지는 것.

여러 장르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면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는 이같은 퍼포먼스는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전망된다.

지난 부처님 성도절 구도음악회라는 이색 행사로 화제를 모은바 있는 정광사 주지 송암스님은 "부처님 사상을 예술로 형상화시키면 훨씬 이해가 쉽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국의 절들이 이러한 문화예술을 토대로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면 부처님 오신날은 불자뿐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국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과 함께 숨쉴 수 있는 방편들을 계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방배동 정광사는 지난해 10월7일 개원3주년 기념행사로써 국악인 안숙선씨를 초청 판소리 '부처님 일대기'를 공연했다.

23·24일 정광사 **부처님 탄생 찬탄 파라미타 축전**

15일 목아박물관 **임동창·장사익·굿패 동남풍 출연**

불심시심 〈52〉

백년의 손님

宇內百年客 (우내백년객)	우주 안의 백년의 손님
枕邊千里僧 (침변천리승)	베개머리 천리의 중
天山與地水 (천산여지수)	하늘의 산, 땅의 물
隨意任騰騰 (수의임등등)	마음대로 맡겨둔 등등한 기상

이 시는 월저(月渚)대사가 '우의(寓意)'라 제한 시이다. 곧 뜻에 맡겨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제목이 시사하듯 이 시는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는 자세이다.

사람살이의 실체는 제한된 공간과 유한한 시간 속에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무변의 공간이 나를 위해 있을 수도 있고, 유한한 시간이라도 무한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백년의 나그네라 함은 온 시간의 간격을 말함이지만, 한 평생이라는 한의 개념이 듬기에 따라서는 찰나의 한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주라는 무한의 공간 속에서 한 평생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것이 못된다. 이렇게 왔다 가는 나그네이다.

천리라는 먼 거리도 베개머리라는 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지난 번에 보았던 천리 만리의 길을 여기서 다시 연상하게 한다. 우주를 집으로 생각하는 나그네, 베개머리도 천리로 여겨 당처에서 천리의 먼 곳을 자유로이 오고가는 스님이다. 여기에서 깨달음의 세계란 시간의 막힘이 없고 공간에 구애되지 않음을 알겠다. 이것을 일러 시무애, 처무애라 함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자유로운 자세이니 이때부터 모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이는 것이다. 저 하늘로만 오르는 산, 땅으로만 흐르는 물, 제 높이와 제 깊이를 제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산은 산 그 자체이고, 물은 물 그 자체이되, 그것들이 저홀로 존재함이 아니라, 하늘은 땅이 있어 하늘의 높음이 유지되고, 땅은 하늘의 높음이 있어 낮음으로서의 물 흐름을 수용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물 수용의 자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제 스스로 되면서도 자연 질서의 조화에 조금도 역행됨이 없이 임의대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끝 구에서의 마음대로 맡겨둔 등등한 기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시는 이렇듯 스님들의 자유자재한 해탈자적 자세를 음미하기에 적합한 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박찬갑씨 코펜하겐市 초청展

"통일염원 조각 메시지"

남북분단·동양사상등 다채 표현

조각가 박찬갑씨가 덴마크 코펜하겐시 유럽공동체 문화수도기념초대전에 초청돼 코펜하겐시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코펜하겐시 노다다 미술관(4월 30일~5월 19일)과 호그 스튜디오(5월 10일~24일)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박찬갑씨는 한지 꼴라쥬 작품과 조각 그리고 설치미술을 선보인다. 노다다 미술관 전시는 호소리-DMZ를 주제로, 미술가가 본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북분단의 안타까움과 통일에의 강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호그 스튜디오의 전시는 지난 94년에 이은 앙콜전시로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모색과 불교사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각과 한지 작품이 전시된다.

주한 덴마크대사관 비어떼 라슨 영사는 "우리 코펜하겐시에서 박찬갑초청전을 갖게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한-덴마크 사이에 많은 문화교류가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문화인물 **조선중기화가 김명국**

문화체육부는 '달마도'로 유명한 조선중기 화가 김명국(1600~?)을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대담하고 호방한 필법으로 독창적 화풍을 개척한 김명국은 도화서 명화원으로 궁중행사를 위한 병풍제작등 국가적 繪事를 도맡아 했다.

거친 필치와 흑백대비가 분명한 묵법, 날카롭게 각이 진 윤곽선 등의 산수인물화 외에 대담하고 힘찬 선종화를 잘 그렸으며 간결한 붓질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출한 '달마도'는 그의 이러한 화풍을 잘 나타내 주는 대표작이다.

동방고유의 서법정신 '볼 기회'

서예가 김응현씨 고희기념전

6~12일 일민문화관



우리나라 서예계를 대표하는 거목 여초(如初) 김응현 선생이 고희를 맞아 대규모 기념 서법전을 갖는다. 5월 6일~12일 광화문 일민문화관에서 갖는 서법전에는 여초선생의 최신작품 1백40여점이 전시된다.

"서법은 동방고유의 정신예술이며 어떠한 조형예술의 형태로도 미칠 수 없는 극치의 추상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전·예·해·행·초서 등 서예의 5체를 포함한 대소 63건 1백40여 서예작품과 지난 40년대 이후 자각자용한 70여 전각작품들이 선보인다. 고희를 맞은 여초선생의 서법은 원숙과 웅기(雄奇)박대(博大)한 경지로 그대로 혼연천성(渾然天成)하고 묘합자연(妙合自然)하다는 평을 얻고 있어 '독창적 세계를 확보한 현대 한국서단의 書聖'이라는 칭호까지 받고있다. 선생은 서법에만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서법학 이론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서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해 이를 모아 〈書與其人〉이라는 저술집을 내었고 후학들을 위해 서예의 모든 것을 담은 〈동방서예강좌〉를 펴내기도 했다. 또한 서법학술전문지 〈書通〉과 더불어 서예의 대중화를 위한 월간 〈書法藝術〉을 새로 창간해 서예를 통한 민족정신 중흥과 문화부흥에 노력하고 있다.

신작·전각등 2백여점 9월 전국사경대회 예정

평생을 서법에만 정진, 지금까지 7천여 중진 서예가를 배출해내 명실공히 한국서예의 꽃을 새롭게 피운 여초선생은 중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수차례의 초청전을 가진바 있다.

여초선생은 이번 전시후 6월 27일~7월1일 중국 서안 서법예술박물관, 7월6~10일 항주 절강성박물관에서도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전국사경대회를, 6월에는 제2회 한국전각대전도 주최하는 등 쉼없는 정진을 보여주고 있다. 〈숙〉

전시 소식

강장원씨 '달마도' 展



◇강장원作 '달마도'.

운곡 강장원씨가 동양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구도심을 표현한 달마도와 자연을 소재로 한 채색화 작품전을 갖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표정의 달마도연작시리즈와 십우도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와 더불어 강씨는 '비원(悲願)'이란 제목의 화문집을 발간했다.

환불연 14일~27일 **'생명의 근원전'**

민족환경운동불교인연합회(회장 강행원)가 주관하는 생태환경미술제 '생명의 근원전'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린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연기적 관계로 상호인연따라 생멸하며 어우러져 있다는 생명관아래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뿌리훼손(강행원)' '삶-만추의 장(문인상)' '자연-인간(이미숙)' '88-3(정경연)' 등 16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02)715-9306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홍보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출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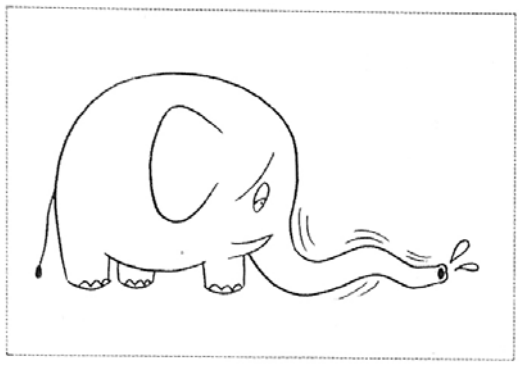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건강백세 ⑫



코 (축농증)

호흡을 주로 맡아 하는 코는 피부, 대소변에 의하는 체온조절 기능중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축농증은 말뜻대로 농이 저축되어 있는 증상이다. 눈밑부분에 자리하는 접형골(蝶形骨)이라는 호랑나비 모양의 연골로된 골짜기 안에 염증으로 인한 농이 모아져서 코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골에 가까워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호흡장애는 물론 냄새를 맡는 기능까지 떨어뜨려 학습이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고약한 증상이다.

수술로 농을 제거하거나 코티슨요법이 많이 선택되고 있으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한 재발될 확률이 많아 고질중의 하나로 통한다. 한의학에서는 비연(鼻淵)이라 했는데 이는 농이 연못에서 나오듯이 계속 흘러 나오는데서 착안한 증세명이라고 본다. 신이화(辛夷花)를 주재로한 여러 처방들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생리적인 환경에 대해 인체는 적응 또는 보상적 기능에 의해 대처한다.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점액분비의 증감을 통해 습윤을 조절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족한데서 우리는 코가 막히거나 마르는 증상을 느끼게 된다.

반복되는 부조화나 외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축농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적절한 습도조절과 감기로부터의 해방이 예방과 치료의 지름길이다.

두통과 호흡·냄새장애 일으켜
습도조절 환경개선이 예방책

물론 체질이나 학습태도 등 생활방식과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역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외에 매독으로 인한 말안장 코(ssddle nose)가 된다든지 독가스에 의한 비점막손상 등도 호흡에 큰 지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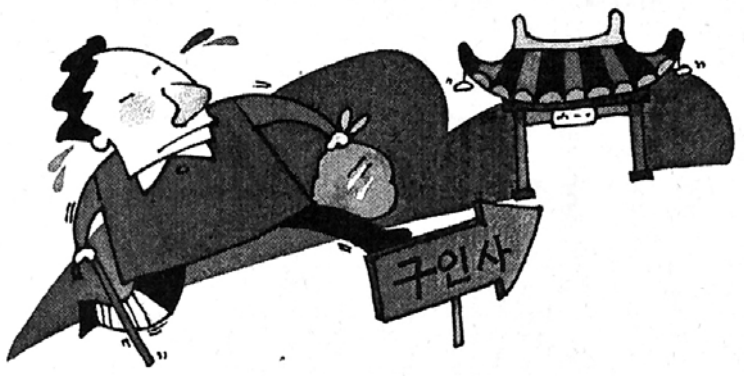
어떤 작은 방해물의 존재도 공기 유입에 장애가 되어 산소부족을 일으키거나 뇌세포 유지에까지 영향을 준다. 마치 자동차의 공기유입량이 차의 출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 ②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그림·이준석

"부처님, 지난 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널리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새벽 잠이 들었는데 꿈에 노스님이…

아내는 기쁜 내색을 하며 "그렇다면 준비를 해줄테니 내일 당장 구인사로 가도록 하세요"라며 구인사 가는 약도를 그려 주었다. 구인사는 기도비도 싸고 뭐든지 지은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한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그리하여 약도를 가지고 봇짐을 어깨에 짊어 지고 그 이튿날 구인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절망의 문턱에서 일어선 새로운 길이었다.

그날이 1989년 음력 10월 5일이었다. 그래서 이날 영춘강을 건너 구인사를 올라가는데 조금조금씩 쉬면서 겨우겨우 천왕문에 당도하였다. 천왕문 2층에 인사하고 간신히 올라가니 접수실이 눈앞에 보였다. 한달 접수를 해달라 하니 접수실 비구니 스님께서 4박5일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두번째부터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연장을 시켜 준다고 했다. 나는 4박5일 기도표를 달고 3층 기도실을 찾게 되었다. 삼층 기도실에 가서 아픈 허리를 벽에 대고 한복판에 있는 TV 옆 벽밑에 자리를 정하였다.

그리고 법당 관음전 삼보당을 차례로 물어물어 다니면서 인사참배를 다 마치고 식당에 가서 저녁공양을 하게 되었는데 흰 죽이 나왔다. 속이 아파서 밥은 먹을 수 없어 어쩌나 했는데 마침 흰 죽을 먹게 되어 내심 기뻤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기도도 안되고 짜증만 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럴적마다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갑술생 목영태이옵니다. 지난 날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널리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면 몇 분간은 잘되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관음전 윗쪽으로 가서 법당에서와 같이 축원한다. 그 역시도 똑같이 졸리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못할 정도가 되곤 해서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기도 시간이 다 지나고 목탁소리가 들리면 취침시간이 되어 버린다. 눈을 조금 붙인 후 일어나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니 구인사에 처음 온 신도들은 접수실로 모이라는 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그곳으로 가서 좋은 법문을 듣고 드디어 입교법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튿날도 기도를 하다말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저녁공양을 마치고 나니 처음 오신 신도분들은 삼보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있었다. 삼보당에 가보니 큰스님을 친견하라는 것이었다. 스님들께서 말씀하기를 많은 소원중에 한가지 소원을 말해보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소원을 말씀드릴까 고민하였다. 그런 끝에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여 큰 스님전에서 "저는 십이지장 궤양을 여러 해에 걸쳐 앓았기 때문에 속이 아파서 밥을 못먹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큰스님께서는 "구기자와 생강을 복용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후 집으로 와 약을 만들어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밤에 기도를 하려면 이래저래 기도가 안되서 법당을 자주 올라가게 되었다.

법당에 다녀오다가 몇차례나 넘어져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다. 나는 가슴에 명찰을 만들어 기도표 밑에 달고 다녔다. 그 이유는 만약 중풍이 재발하여 내가 쓰러지게 된다면 그 명찰을 보고 집으로 연락을 좀 해달라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병이 완쾌된 지금도 그 명찰을 간직하고 다닌다.

그 후로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안에 누워 본 적이 없었다. 약을 복용하면서 4박5일씩 세차례째 구인사에 갔을 때의 일이다. 기도와 번뇌 망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내가 기도하던 중 어떤 노스님이 삼층기도실 문을 열고 들여다 보시며 나의 이름석자를 부르며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따라 나가보니 큰 화장실 앞으로 나를 끌고 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화장실 첫번째 칸에 들어가 변을 많이 보고 나오너라"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때마침 나 역시 변이 보고 싶어졌다.

변을 다 보고 나오니 스님은 그때까지 밖에 서 계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 다 보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제는 밥을 잘 먹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마비로 잘 못쓰는 팔 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은 "백번 올라가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시고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깜짝놀라 깨어보니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

목 영 태
〈경기도 안성군 죽산리〉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㉝

♦ The Brahmana Aggikbharadvaga saw Bhagavat coming at a distance, and seeing him he said this: 'Stay there, O Shaveling; (stay) there, O wrectched Samana; (stay) there, O Vasalaka!'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머리깎은 땡초야, 거기 서라. 초라한 사문아, 멈추어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This having been said, Bhagavat replied to the Brahmana Aggikabharadvaga; 'Do you know, O Brahmana, an outcast, or the things that make an outcast?'

이말을 들은 스승은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드라바지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천한 사람을 알고 있소?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소?"

'No, O venerable Gotama, I do not know an outcast, or the things that make an outcast; let the venerable Gotama teach me this so well that I may know an outcast, or the things that make an outcast.'

"고타마여 저는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타마여 부디 제가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Listen then, O Brahmana, attend carefully, I will tell you.' 'Even so, O venerable one,' so the Brahmana Aggikabharadvaga replied to Bhagavat. Then Bhagavat said this;

"바라문이여 내가 알려줄터이니 주의깊게 들으시오." "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했다.

*shaveling (n) 삭발한 승려를 낮추어 부르는 말
*wretched (a) 아주 초라한, 불쌍한
*Vasalaka (빠알리어) 천민 (=vasala)
*outcast (n) 천한 사람 (=vasala)
*attend (v) 주의하다

오증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프래니 ㉮

J. D 샐린저 作



그림·심민섭

그리고 잠시 동안, 담배는 그대로 왼손에 쥔 채 오른손으로 우유잔 아래쪽을 꼭 쥐고 있었다.

"스타레츠가 순례자에게 가르친 특별한 기도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하고 그녀는 말했다.

레인은 마지막 남은 개구리다리를 자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물론이야"하고 말했다.

"그 스타레츠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가를 일부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말하자면 저항을 느끼면서 그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무엇 하나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견해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 이 기도를 행하면, 삼라만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는 거야."

레인은 자세를 바꿔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는 프래니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도 창백해 있었다.

"사실 말이지, 이것은 정말로 이치에 닿는 이야기라구."

프래니는 말했다.

"왜냐하면 불교의 염불종(念佛宗)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라고 하거든."

"자아, 진정해."

레인이 말을 가로막았다. 프래니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레인을 보았다.

"좌우간 말이지, 말하는 동안 잊어버렸을까봐 이야기 하는 건데,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그 말을 했던가?"

"레인, 한 번 더 잠깐만 실례할께."

프래니가 말했다. 그리고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섰다.

"순수하게 기도하면 삼라만상에 대해 새로운 관념이…"

레인도 그녀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일어섰다.

"프래니, 괜찮아?"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이미 홀을 지나 조금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유리컵을 닦고 있던 바텐더가 그녀 쪽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오른손을 카운터에 걸치고 절이라도 하듯이 머리를 숙이고는, 왼손을 올려 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볍게 짚었다. 그러다가 약간 비틀거린다 싶더니, 그 순간에 정신을 잃고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프래니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것은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

"좀 어때? 괜찮아?"

프래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맡은 전등이 눈부셨던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눈을 떴다.

"좋아, 좀 멍하긴 하지만 기분은 좋아. 나, 정말로 기절했었어?"

프래니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방안을 둘러봤다. 레인은 프래니의 손을 잡은 채, 무엇을 생각하는지 눈도 깜박이지 않고 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너,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 거니?"

"나, 목이 좀 말라. 물 좀 주겠어? 귀찮겠지만…"

"곧 돌아올께.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프래니는 가만히 누운 채로 천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소리도 나지않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듯. 그리고 그것은 그칠 줄을 몰랐다.

〈끝〉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 778-5345
팩스 : 777-1917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들이 제거되어 본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상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체신제 복용 기타 공복감이 없다
• 노소, 체격차, 업무 차련할 식욕성단제진 성취
• 수련내용 염불선대수련 선관선대수련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은 불교 나면 성정효과론의 분비가 확실해져(및 생리로나이대학 로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정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원시 용원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보 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급 매
· 이름 : 송림사 극락정사
· 주소 : 의성군 단밀면 용곡 1동 863번지
· 전화 : (0576) 862-0319
· 내용 : 대지 200평 산자락과 더불어 전망 좋은곳
· 법당 : 8-9평
· 요사체 : 방3칸, 목조, 시멘트, 혼합건축물, 상태양호
· 참고 : ❶법당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조성된 거북바위, 용궁바위, 미륵불을 갖춘 기도도량 ❷사찰 진입로에서 300m떨어진 곳이 바로 대도로로서 포장공사(아스팔트) 완료 ❸신도님들의 발길이 잦음 ❹기타 가격등은 전화 혹은 직접 방문 후 상호 절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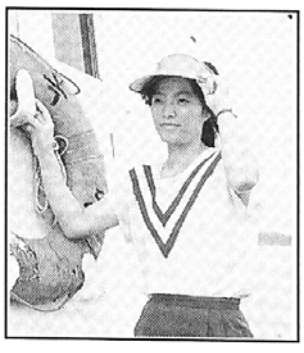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전 언
상좌 혜광에게 법주사 주지를 하지 말라고 누차 권했으나 아직도 수용을 하지 않으니 내 상좌라 볼수 없다는 말을 전하는 바이다.
수원 팔달사 범행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성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벙풍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약람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불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분양
안전한 투자
국가공인기관관리
동대문최요지전문상가 8500萬투자
1년후 ~ 2~3억원 (은행대출3천만원)
본사보장 첫임대시, 保3千, 月90萬 책임보장
전화: (02) 264-2512, 담당: 과장 최경란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 홍 정 수
■ 나이 : 30세
■ 키 : 165cm
95년 8월 집을 나감
사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할머니께서 위독하신 상태로 애타게 (청주한방병원 309호) 찾고 있으므로 위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이나 본인은 급히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전화 : (02) 683-3252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우성타운 301번지

청소년 문화 큰잔치 '활짝'

청교련·파라미타·한불청, 음악 미술 등 경연 풍성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청소년의 달 5월. 새싹불자들의 신심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립을 위한 대형축제가 잇따르고 있다. 30여년 동안 새싹불자포교를 앞장서 온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 고취를 위한 제9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를 펼친다. 또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가 창립이후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축제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가 따스한 햇살이 되어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맘껏 발휘해 보는 것도 건전한 심신수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교련—26일 동국대 중강당
파라미타—12일 올림픽 역도경기장
한불청—19일 용산전쟁기념관

청교련 오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창립30주년 기념 제9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예술적 소양의 고취를 위해 열리는 이 행사는 중고등학생으로 사찰 및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연 종목은 전통예술부문으로 △국악연주 △사물 △농악 △고전무용 등과 대중예술부문에 △연극 △현대무용 △시낭송 등의 경연이 마련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대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최우수상을 비롯 총 5개부문에 상장과 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은 15일까지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종로구 견지동 39-1(상운중심 3층) (02)735-8165, 733-5138

파라미타 오는 12일 제1회 파라미타 청소년문화대축제를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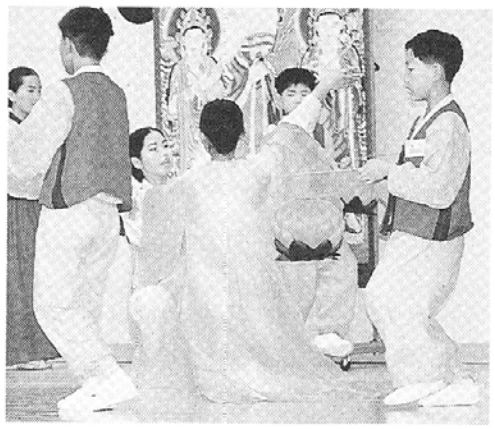
파라미타 발대식 및 서울지구출범식을 겸한 이번 행사는 1부 파라미타 로고선포에 이어 2부 문화대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문화축제에는 천마현대무용단의 재즈댄스, 동대부고의 탈춤공연을 비롯 인기가수 이상우, 그룹 어스, 김덕수 사물놀이팀이 특별출연, 청소년들과 함께한다. (02)720-7060

한불청 오는 19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제1회 참나청소년 및 지도자 통일문화예술대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위한 문화예술적 동질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를 비롯 대학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부문은 문학부(운문, 산문) 미술부(수채화, 파스텔화) 종합예술부(불교미술, 조각, 건축, 기타) 합창부(지정곡 1곡, 자유곡 1부)이다. 특히 종합예술부는 오는 23일까지 소정의 작품을 제출해야한다. 이번 예술대전의 대상에는 통일원장관상과 문체부장관상을 비롯 4개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한편 입상자 발표는 6월4일자 현대불교신문과 한국불교신문, 소년조선일보에 게재하며 시상식은 6월 15일 오후3시 성북동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갖는다. 이번 예술대전에서 종합예술작품과 청소년부 우수작품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7일까지며 접수처는 성북구 성북동 292-1 중앙불교회관. (02)747-5787~8.

김중근 기자



◇청소년교화연합회가 벌인 청소년 종합예술대회.(사진은 지난해 대회 장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마당 큰잔치를 준비하는 자비예술단 단원들의 몸짓이 분주하다.

초파일 봉축준비 바쁜 '자비예술단'

24일 석관동 '자비의 집' 지역주민 초청공연

"1백여 어린이 땀으로 연습 춤사위마다 부처님 오시네"

"손끝을 힘있게 위로 쭉 뻗어야지. 발은 살포시 내딛고."

"쿵 덩덕쿵 덩더러럭"

연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고 분주한 동연이(수유초등학교 4). 저녁 6시가 되자 동연이 또래 어린이들의 몸놀림과 선생님의 지휘로 20여평 남짓한 석관동의 한 법당안이 어느새 가득찬 생기로 활기를 띤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으로 오는 24일 석관동 자비의 집에서 지역주민 3백여명과 함께 '한마당 큰잔치'를 펼칠 자비예술단 어린이들의 춤사위와 고사리 같은 손에서 튕겨 내는 징과 북, 장고의 풍물소리가 자비의 집 법당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었다.

청원스님이 월곡포교당을 개원,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교실을 개설하면서 인연이 된 1백여명의 어린이들 중에 예술적 재능이 있는 학생 20여명을 차출, 교습을 하면서 시작된 자비예술단은 미래불교를 이끌어 갈 새싹불자들이 한국적인 흥을 제대로 풀어내고 향유하도록 하기위한 꿈의 보금자리다. 청원스님의 숨은 노력으로 92년 이래 전통의 혼을 이어온 자비예술단 단원들은 선생님의 장단에 연분홍 부채와 부드러운 춤사위로 빚어내는 땀내음으로 법당안은 향내와 어울려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를 내뿜는다. 어느새 법당은 화려하고 긴장이 감도는 공연장으로 변해 곁에서 연잎을 말아 연등을 만들고 있던 보살님들의 손길을 멈추게 한다.

"어머, 벌써 8시구나. 오늘은 그만하시죠, 선생님."

딸의 연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의 목소리에 겨우 제 정신(?)을 차린 어린이 단원들은 누구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도, 눈치를 봄도 없이 그저 2시간이나 지나버린 시간에 놀랄 뿐이다.

이렇듯 부처님 오신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단원들은 국내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풍부한 공연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공연장에 몰려올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다"고 말한다.

연신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들의 풍물소리와 흥겨운 우리가락이 한마음으로 뒤엉켜 법당 안의 열기는 어느새 석관동 일대를 축제 분위기로 자아내고 있었다.

도필선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길의 장 *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이 향 원



불을 가득 법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

— 당당한 부모를 위한 여시아문의 제안 —

TV만 보는 엄마
신문만 보는 아빠
책 읽는 엄마, 아빠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이 전하는 온가족이 함께 읽는 책

● 쉽게 찾는 우리 꽃(가을, 겨울)
현암사의 쉽게 찾는 우리 꽃 시리즈 세 번째로 봄, 여름에 이어 이번에는 가을·겨울 꽃을 한 권으로 묶었다. 꽃의 색깔만 보고서도 꽃 피는 시기, 특징, 용도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엮어 놓아 녹음이 푸르른 이 계절, 산으로 들로 나가면서 호주머니에 이 한 권의 책만 살짝 간직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정서를 더욱 살찌울 수 있을 것이다.
변형판(110×205) 288쪽 / 글·사진 김태정 / 현암사 / 값11,000원

● 쉽게 찾는 우리 나비
155종의 나비를 원색 컬러 사진 244장에 담아 놓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나비를 거의 다 모아 놓았다고 할 만하다. 봄, ㅇ름, 가을, 철마다 발생하는 나비, 한계절에만 나타나는 나비, 들과 산기슭 혹은 산꼭대기에서만 사는 나비 등, 그 발생 시기와 생태 방법, 특징 등을 자세하고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억시 녹음이 우거진 5월에 꼭 필요한 책.
변형판(110×205) 206쪽 / 글·사진 이원규 / 현암사 / 값 9,500원

● 키는 1미터 마음은 2미터
혜화 국민학교 6학년 박상욱 어린이의 일기 모음집.
삶에 대해 아무런 속박도 느끼지 않는 한 어린이의 가슴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그대로가 한 편의 시에 가깝다. 더욱이 박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빠(시인 박중식씨)와의 소리 없는 교감들은 아빠를 사랑하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빠와 아들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한다.
신국판 239쪽 / 박상욱 지음 / 가리온 / 값 4,000원

●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저자가 수년간 어린이 법회를 지도해 오면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수필 혹은 대화 형식으로 엮었다. 어른들도 항상 궁금해하는 문제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코며 불교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책이다.
신국판 175쪽 / 우학 지음 / 좋은 인연/ 값 4,500원

● 푸른 별의 환경 파수꾼
미래를 가꾸어 갈 어린이들에게 각종 핵무기의 개발, 생태계의 파괴로 병들어 가는 지구,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상상력 함양은 물론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생각하며 나아가 자연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신국판 219쪽 / 문명식·주선희 지음 / 푸른나무 / 값 4,200원

● 우리 새 백 가지
텃새, 여름 철새, 겨울 철새, 나그네 새와 길 잃은 새로 구분하여 우리가 평소 반드시 알아야 할 새 백 가지를 뽑아 엮었다. 특히 새에 관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도감류의 단조로움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 사랑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 좋은 길동무가 될 것이다.
신국판 499쪽 양장본 / 이우신 글·김수만 사진 / 현암사 / 값 14,000원

● 우리 민물고기 백 가지
어린 시절 냇가에서 미역 한 번 감아 보지 못한 사람,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걸어 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며 살았던 기억이 없는 우리 도시인들의 팍팍한 가슴을 별빛 쏟아지는 자연의 거리로 내몰아 줄 책. 100종이 넘는 민물고기들을 개체수가 많은 종부터 시작하여 그 생김새를 사진과 함께 하나하나 기록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신국판 532쪽 양장본 / 최기철 글·이원규 사진 / 현암사 / 값 18,000원

● 먼 나라 이웃 나라
작가가 10여 년 간의 유럽 생활을 거치면서 느낀 그들의 생활, 문물, 사상, 문화 전반에 걸친 것을 나라별로 만화 형식을 빌어 선보인 책. 작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외국 문물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나 동경보다는 우리가 살아야 할 무대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부라는 데 눈을 뜰 것을 강조한다.
프랑스에서 스위스까지 전 6권으로 되어 있으며 제9회 한국 어린이 도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4×6배판 각권 약 210쪽 / 이원복 글·그림 / 고려원 미디어 / 값 2,800원

책방 여시아문
초고속 인터넷
무료 검색 서비스 제공!!
(부다피아와 연계)

— 책방 여시아문에 오시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시아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초고속 56 K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몸만 오세요)

— 특별회원을 위해 전자 우편 주소도 할당해 드립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위한 모든 소프트 웨어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인도 불교, 티벳불교, 일본 불교 등 전 세계 불교 관련 정보를 검색, 프린트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가 소식

불교TV 8부작 '원효'

불교TV는 오는 19일부터 8부작 드라마 '원효'를 방영한다. 지난 86년 KBS에서 제작,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탤런트 전무송씨가 원효스님 역을, 유지인씨가 요석공주 역을 맡았다.

BBS 개국 6돌 특집

BBS는 개국 6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밤 10시 5분 〈불교방송, 그 새로운 희망의 큰 걸음으로〉를 방송, 자체진단의 자리를 가졌다.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 조선일보 공증원 논설위원, 현대불교신문 최정희 편집국장이 출연, 불교방송의 임무,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방향을 진단했다. 특히 이날 좌담에서는 대구, 청주 지방방송국의 개국을 앞두고 양대 지방국의 희망과 포부, 그리고 자리매김도 점검했다.

'달마가~' 美서 LD출시

지난 90년 로카르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용균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세계 걸작영화만을 엄선하는 미국 보이저사의 LD시리즈 〈크라이테리언 컬렉션〉의 하나로 선정돼 최근 출시됐다.

'달마가~'은 지난 93년 8월 미국에 첫선을 보였으며 미국 비평가들로부터 기존의 관습을 깬 파격적인 실험정신과 불교에 기초한 철학적인 깊이를 지닌 독특한 작품이란 평가를 얻었다.

교계 청소년 수련원 설립 '열풍'

괴산·원주·예산·제주등 전국에 연수·학술회의등 유치 '심신단련'

청소년 불자들에게 신심과 극기를 심어줄 불교청소년 수련원 설립과 증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가 97년까지 4천3백억원을 투입하여 3백24개소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다 폐교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교계의 수련원 건립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흥원의 괴산 다보수련이 올해 설립되며, 천태종 원주청소년수련원이 기공식을 갖고 총지종 예산수련원이 증축을, 제주 목부원이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강원도 원주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 오는 6월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물공사에 돌입하는 천태종 원주 청소년수련원은 원주시 행구동 2만 3천여평(허가면적 8천여평)부지에 강의동 숙박동 식당동 등 3동의 건물과 운동장 야외집회장 테니스장 족구장 민속경기장 야영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35억여원의 예산으로 설립되는 천태종 원주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지도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반인과 불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소년수련원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수련원 건립불사를 추진중인 장송재스님(총무원 인사국장)은 "이번 청소년수련원의 개원은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쉽게 접근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설립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준공되는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의 다보수련원은 다가올 21세기를 책임질 젊은 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충북 괴산 청천면 54만평 부지에 건립중이다.

다보수련원은 53평규모의 법당과 지상2층 지하1층 2백26평의 수련동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진흥원의 권오현국장은 "앞으로 수련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불자 청소년연수및 수련회와 학술회의등을 유치하여 한국불교 발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충남 예산 청소년수련원에 95년 1개동을 건립한데 이어 올해에도 1개의 수련동을 증축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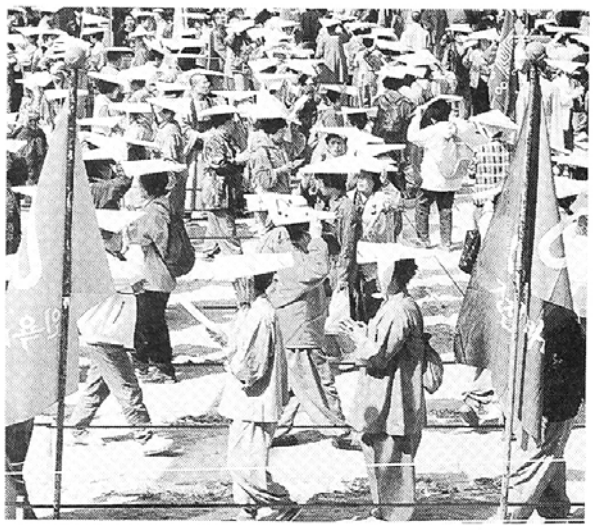
총지종의 법공통리원장은 "청소년포교가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며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종립학교인 부산 동해중학생과 불자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불교교리공부, 인내력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불자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주 목부원등 일부단체에서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중이며 기존의 화성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원장 성일스님)과 봉화산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법사)도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성 신흥사는 청소년 교육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경기도지역 전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 부모은중경과 오계에 바탕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봉화산 청소년수련원도 수련대상을 전국의 일반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촌어린이 축제와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한문학교를 개설하고 문제 학생들을 계도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온누리에 불법 가득

제36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가 전국 각지에서 3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6~27일 이틀간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불자들은 경책을 머리에 인채 의상조사의 법성게를 염송하며 온누리에 불법이 충만하길 기원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태고종 홍보팀 구성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4월22일 종단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팀을 구성했다. 태고종 홍보팀은 주간·월간 단위로 종단의 활동사항과 행사예고를 자료집으로 낸다.

법등회 4주년 법회

대한불교법등회(회장 강자명심)는 지난 4월30일 오후 부산 허심청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천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박완일(전 조계종 신도회장)씨가 법사로 나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대구가스참사 1년 합동추모제

재난방지 백서 발간·위령탑 건립 추진

대구상인동 지하철 가스참사 1주기 합동추모제가 지난달 28일 동방상가앞 주차장에서 엄수됐다. 유족회의가 주최하고 대구사원연합회가 주관하여 불교의식으로 치러진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 삼풍백화점 희생자유족대표, 원명스님(대구사원연회장), 무공스님(동화사 주지), 문희갑 대구시장, 대구지역 국회의원당선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하여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101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듯 이날 행사는 시종 유족들의 오열속에 진행됐다. 천도식은 인간문화재 제50호 범패이수자인 원명스님이 집전했다.

종조탄생절 법회

진각종 10일 총인원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오는 10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제95회 종조탄생절 봉축법회를 갖는다.

김흥국씨 불자가수회장 취임

세계 기아·난민돕기 '자비의 종 운동' 동참

인기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2일 대한불자가수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자가수회 회원 30여명과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이 축하하는 가운데 거행된 회장 취임법회에서 김흥국 회장은 "초대회장을 맡았던 제가 다시 회장 임무를 맡게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여러 선후배 가수들과 화합해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수회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흥국씨는 최근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세계 기아 난민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비의 종'저금통 모금운동에 홍보맨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비의 종'저금통은 서울은행과 연계, 전국의 서울은행 사찰 단체 등서 50만개가 무료 배포되고 있다.

(문의 02-732-1206)



◇난민돕기 모금운동 포스터.

목탁소리

봉안정신 살리는 '발굴의식'

이 경 숙 〈취재2부 차장〉

지난 4월 25일에 있은 감은사지 동(東)탑 해체작업은 매우 관심이 가는 작업이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답사여행 붐을 일으킨 유홍준씨가 자신의 책 표지사진으로 쓸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있어 완벽하다고 극찬하여 여느 탑보다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감은사지탑.

수많은 탑이 있지만 다보탑 석가탑 외에 국민들이 "아! 그거"하고 알만한 탑으로 새로 등장한 감은사지탑에서 예상한 대로 무늬가 화려하고 정교한 국보급 청동제 사리함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국보급 사리함 발견이라는 낭보외에도 이번 작업이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또 있다. 감은사지탑 발굴 착공전 성공적 복원과 성물(聖物)이운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이 스님들에 의해 처음으로 봉행됐기 때문이다. 불교계와 문화재 관리국은 불교문화재 발굴시에는 착공전에 반드시 불교의식을 봉행키로 하고 이번 감은사지탑 발굴부터 실시했다. 진작 했었어야 하는 일이다.

문화재가 수백년, 수천년을 넘어서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이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솜씨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손끝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다듬고 빚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문화재를 만든 선조들은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극한 불심으로 정성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러한 성보들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정성을 다해 보살피기는 커녕 물욕에 눈이 어두워 훼손 도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하에 묻혀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불도저에 파괴돼도 눈하나 깜짝 않는다. 성보문화재들의 보고인 불교도시 경주에 단지 경제이득만 따져 강행하려는 고속철도사업만 봐도 한심한 일이다.

성보문화재를 봉안하던 선조들의 그 지극한 마음을 되새기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문화재들을 보존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감은사지 동탑에서의 불교의식 봉행은 여러모로 뜻깊다.

부다피아 불교사이트 여행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

병고이기는 명상법등 임종복지 프로



인터넷 가상공간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불교 사이트중 유일하게 불교 임종복지와 간호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젠호스피스 프로젝트(Zen Hospice Project)'.

지난 87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선센타에서 시작된 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은 매년 3백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역 의료 봉사활동을 활발히 돕고 있다.

젠호스피스 프로젝트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원봉사 교육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비롯 봉사자들의 체험담, 삶과 죽음 질병에 관한 정보, 열반경을 비롯한 경전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 훈련 프로그램은 정신적인 훈련과 실천적 행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젠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은 명상의 훈련을 통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을 키우며, 환자가 병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두려움을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젠호스피스 프로젝트는 지난 4월17일부터 '에이즈와 치매 환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했으며, 임펙트 온라인사에 의해 비영리 교육단체 베스트 웹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소 http://www.well.com/user/devaraja/

남수미 기자

명상으로 에이즈 퇴치운동 개빈 헤리슨

美 매사추세츠 '위빠사나 센터' 운영

AIDS환자 500여명 치료 '행복감' 경험



"에이즈로 고통 당하는 환자에게 명상교육을 시키며 느끼는 보람은 그들이 명상을 통해 예전에 자신이 맛볼 수 없는 숭고한 행복을 경험하고, 죽음에 직면한 두려움과 고통을 반감시키는 일입니다." 개빈 헤리슨은 최근 불교계간지 〈트리사이클〉과의 인터뷰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명상교육을 시키며 느끼는 보람을 이렇게 피력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위빠사나 센터를 운영하며 에이즈 감염 환자들에게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개빈 헤리슨은 지난 70년대 조셉 골드스타인으로부터 수계받은 재가불자로서 '에이즈 퇴치운동' 등의 사회참여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반인종차별운동에 적극 가담해 옥고를 치루고 추방당하기도 했다.

현재 헤리슨이 운영하는 위빠사나 센터에서 명상교육을 받는 에이즈 환자는 50여명. 헤리슨에 따르면 이들이 겪고있는 HIV 바이러스 증세는 체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온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증후 외에도 환자를 더욱 압박하는 것은 "에이즈라는 천형에 직면한 환자 개개인의 정신적 고통과 패배감"이라고 헤리슨은 지적했다.

사실 위빠사나 명상교육을 받은 환자들은 숭고한 행복을 맛보고, 질병에 대해 예전에는 느낄수 없던 평온함을 체험했다고 한다. 혹은 자신의 영혼이 '일어서라'는 환청을 듣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헤리슨은 에이즈 감염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명상교육' 뿐만 아니라 고립된 환자를 위해 모임을 주선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기자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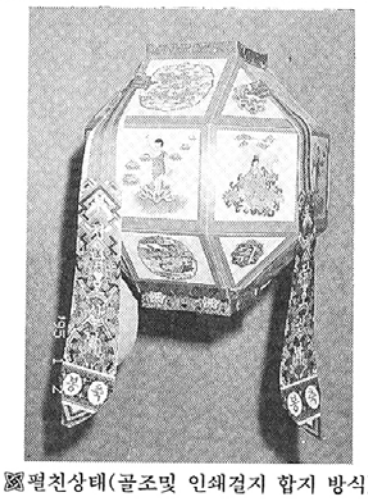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5층)
■대한 불교 조계종 보문 포교원(원장 각장 스님)
■부산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전화 10335134-9490, 39-1906
이간 (0342)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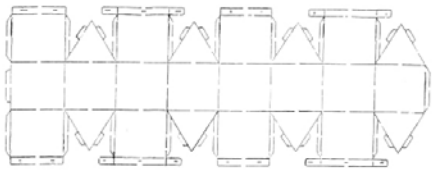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053)321-2588
대전지회 (042)222-46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052)274-7536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법등, 영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홍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현불뉴스

한가족봉사단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 한가족자원봉사단이 발족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봉사가족을 모집한다. 복지재단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오는 14일 탑골공원에서 접심공양은 물론 무료진료, 이·미용봉사, 침술봉사 등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한 노인공양행사를 마련한다.

광주사암련 강연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는 지난 2일 광주시민회관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불교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영조스님의 인사말과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의 격려사 송인현(관음사 신협) 이범호(향림사 신협) 이사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광주=주영직 지사장〉

불교산악회 결성될듯

신행과 취미를 조화시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 불교산악회가 모여 전국 규모의 불교산악회를 결성한다.

부산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산악회, 성남불교산악회, 대구불교산악회 등은 지난달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다한불교산악회를 창립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불자당선자 축하법회

증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오는 13일 롯데호텔에서 15대국회 불자당선자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자민련불자회(회장 김용태)도 11일 서울 송파동 통도사 호국포교원에서 자민련 소속 불자당선자 축하법회를 봉행한다.

학승 25명에 장학금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를 열고 해외 유학승 15명과 국내 장학승 10명등 총 25명의 대학교 재학승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이날 승가대학의 강사를 양성하기위해 한시적으로 (가칭)종립 삼학원을 설치키로 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대구 수성수련관 개관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관장 초우스님) 개관법회가 지난달 28일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여의도 '불교문화대전' 열린다

불교TV 23일~6월1일 종단·유물관등 개설… 미술·영상·공연등 다채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불교문화대제전'이 오는 23일부터 매일 아침을 밝히는 예불과 함께 10일간에 걸쳐 여의도 대광장에서 펼쳐진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와 봉축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불교TV(사장 태응) 주관으로 치뤄지는 이 행사는 불교문화재 전시를 비롯 예불의식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이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게 될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전시장을 마련했다.

먼저 종단관에서는 조계종을 비롯 태고종 진각종 등 8개의 대표적인 불교종단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 자료 전시 홍보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유물관에서는 불교미술 각 분야를 시대별로 정리해 변천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게 했고, 한국불교를 대표할 큰 스님들의 영정 및 유품도 전시된다.

또 각 분야의 개인초대전 형식이 될 현대미술관을 비롯 다양한 불교용품과 세계각국의 불교관련 자료가 놓여질 공예품관 및 세계 불교상품관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교영상관은 미래 영상산업시대를 대비한 불교계의 각종 영화와 불교TV의 우수프로그램을 상영, 불자와 일반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돼 있다. 민속놀이 마당, 영산재, 남사당패 공연, 불교전통화혼식이 요일별로 펼쳐지며 24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축법요식과 육법공양도 시연한다. 또한 상설 사찰음식관과 21세기 정보통신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가전 제품도 전시된다.

또한 25일 저녁에는 박범훈 교수가 이끄는 국악관현악단이 이번 행사의 테마 공연인 '1천6백년의 숨결'을 비롯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마당, 부모은중송 공연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이웃위해 연등 밝힙시다"

우리는선우·맑고향기롭게·불교인권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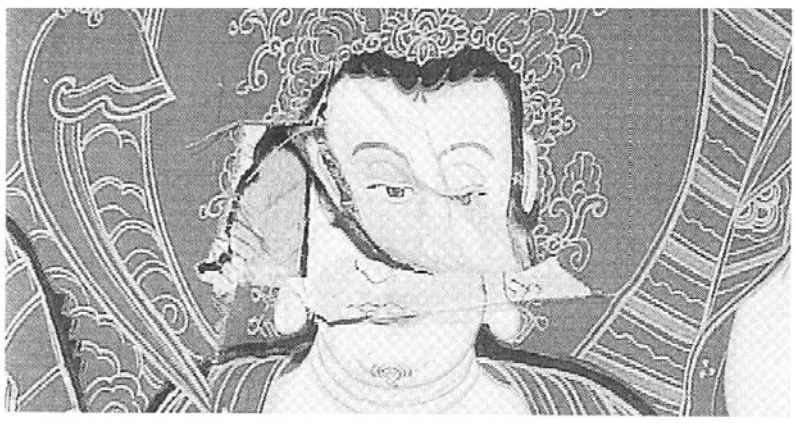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남을 위해 등을 달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5년째 자비의 등달기 운동을 펼쳐온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올해에는 그동안 펼쳐온 축복 감사 용서 관심 쾌유 통일 등 10개의 등에 해외난민구호 승보공경 군장교포교 청소년포교 이웃돕기 등을 위한 등달기운동을 펼친다. 동참금(1등 1만원)은 모두 목적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02)278-8672

맑고 향기롭게 서울모임(본부장 윤청광)에서는 대비양로원 송암보육원과 보라매법당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을 위한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운동을 전개한다. (02)741-4696

불교인권위원회는 광주 망월동에서 5·18 민주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등불켜기를 5월24일 오후7시 현지에서 봉행한다. (02)734-6401

이들 운동은 부처님 오신날인 24일까지 접수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해마다 이교도들의 훼불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목사가 법당의 불상을 부수고 탱화를 찢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잡힌 목사는 경찰서에서 단순 정신병자로 처리, 석방됐다.

故 이기수씨 생명나눔실천회에 각막 기증

"육신을 사회광명에 바칩니다"

경상대 의대 해부실에 시신회향도

4월22일 새벽, 경남 진주 경상대 의대. 결핵을 앓고 있던 이기수씨(67)가 한달여 사경을 헤맨 끝에 숨을 거뒀다. 이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정혜스님(성양원 원장)과 신도들의 독경이 끝나자 "살아생전 밥도둑처럼 살아온 육신을 새생명 광명을 밝히는데 써 죽어서나마 참삶을 살고싶다"던 이씨의 뜻대로 시신은 경상대 의대 해부학실로 인계됐다. 이씨는 이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에 시신, 각막기증신청을 해 놓고 있었다.

해부학실에 안치된 이씨는 제일 먼저 안구가 적출됐다. 그 뒤 이씨의 나머지 시신은 의학발전을 위해 받쳐졌다.

적출된 이씨의 안구는 경남 농촌진흥원의 배승술과장(48)과 하동군 청암면의 황채호씨(51)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돼 또 하나의 생명으로 화현했다.

6·25사변 당시 월남해 가난과 결핵으로 가시밭길 인생을 살다간 이씨. 양산 미륵원장과 신도들이 결핵을 앓고 있던 자신을 위해 이불을 만들어 왔는데도 좋은 이불을 덮을 자격이 못된다며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호소했다는 이씨의 일화는 평소 "보잘것 없는 자신이 부처님과 인연이 된 것조차 죄스럽다"던 그의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잘 말해준다.

따뜻한 가슴으로 부처님의 뜻대로 소리없이 살다간 이씨의 이같은 고귀한 뜻은 이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행스님 법회와 불교음악회가 지난달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광주불심 한마음 되었다"

대행스님법회 현장서 2천3백만원 모금

광주 불자들은 지난달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소년소녀 가장돕기 대행스님 법회와 불교음악제'에서 2천3백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날 대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주와 자기가 하나되는 도리를 믿고 생활속에서 마음을 닦을 것"을 당부했다. 2천여 사부대중은 법어를 경청하면서 발심, 보시함에 자비심을 담았다. 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 광주와 본원의 혼성합창단, 무등국악관현악단의 음성공양에 갈채를 보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광주사암련 회장 영조스님과 불교광주방송사장 등 지역유지들이 동참하여 자리를 빛냈다.

선학원스님제적 관련 초심호계원 27일 연기

선학원이사 9명이 스스로 승적을 포기하는 제적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월서)이 법진, 성열스님 등 선학원이사에 대한 심리를 5월27일로 연기, 분종위기까지 갔던 선학원간의 갈등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총무원 관계자는 초심위의 심리연기와 관련 "일부에서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여론에 따라 시간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함이다"며 "그렇지만 선학원을 종단 관장하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봄철 분원장회의를 갖고 종단과의 현안문제를 보고하는 한편 종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선학원은 지리산 정각사와 울산 태화사를 각각 비구,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사인정 입법추진

보건복지부 올 국회 상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뇌사판정기구와 장기이식정보센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박광서교수(서강대)는 "장기이식은 또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행"이라며 복지부 계획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불교계에는 뇌사자의 생명권리를 주장 공식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초파일 봉축·2002년 월드컵유치 기원

맹인불자 1백20명 갓바위 등반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기원하는 등반법회를 가졌다. 대구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 회원 1백20여명은 지난달 28일 앞못보는 장애를 불심으로 극복하고 팔공산 관봉 갓바위를 등반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도법사 김만권스님을 비롯 김주본 개인택시정법회장, 국회의원 박구일거사, 임소남 월드컵유치 대경본부장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개인택시정법회원들은 차량 30여대를 동원하여 시각장애인 불자들을 왕복 수송했으며, 보현사청년회원과 각 직장불교신행단체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등반로를 안내했다.

진해 청룡사서 목사가 훼불

대웅전 문부수고 법당난입 불상·탱화 훼손

경남 진해시 자은동 소재 청룡사(주지 경상) 법당내에 있던 불상과 탱화 등이 한 목사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 불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청룡사 주지 경상스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2시경 청룡사 인근 2㎞ 정도 떨어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면류관교회 배성호목사(43세)가 청룡사 대웅전 문을 부수고 법당에 난입, 대웅전 내에 있던 마이크대로 불상을 부수고 후불탱화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불잡혔다.

불잡힌 배목사는 경찰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우상숭배도 있어선 안된다는 일념으로 일을 결행했다"고 밝혀 불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청룡사 신도들은 배목사가 수년전에도 청룡사에 난입했던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건당일 자신의 교회 승합차로 청룡사 진입로를 가로막아 경찰과 신도의 진입을 막는 등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담당을 맡은 관할 진해경찰서는 배목사를 단순한 정신병자라며 당일 저녁 석방했을 뿐만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피해상황을 사건조서에 누락시키고 있다며 배목사에 대한 기소와 함께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음 한 순간의 그림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든지간에 참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찰나도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도는 한 순간의 그런자일 뿐입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신흥사 주지)이 4월30일 개관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이 포항 학산사회복지관에 이어 두번째로 위탁운영하게된 구로복지관은 아동청소년 노인 지역복지분야에 걸쳐 5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달 30일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 위탁 운영한다.

월주 시현 성타 설송스님과 박원철 구로구청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원법회에서 관장 도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불교사회복지를 일구는 자세로 구로복지관을 불교복지 현대화 작업장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연구및 복지기금마련

사찰음식 전국특판 및 직매장 모집 안내

본 연구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더 연구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부대중의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으로 전국에 보급코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취급품목

된장/고추장/더덕/무우/산초장아찌/김부각/참기름/솔잎콩죽/연자죽/콩반찬(一名 콩고기)/다시마선식/지리산작설차/둥굴레차

그외 다수상품 연구진행중 (각 가정에서 전화 주문해 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전국 각 지역

■ 지원자격 : 산중음식보급에 관심있는 분

☞ 전국취급점

서울:봉은사 516-6610 / 조계사 738-9466 / 도선사 324-4195 / 강남포교원 539-2631 / 불일서점 733-5388 / 불이식당 3443-8444 / 불광사 413-6060 / 광주:전통의학식품 (062)361-3382 / ♣ 사찰매점,신행단체 관광지 산채식당 대환영

♠남·여 직원모집♠

남 : 불교용품 취급 유경험자 환영 여 : 활동적인 불자 환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진 본인 직접 내사 요망)

대한불교 조계종 금륜정사

(부)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 식품 사업부

문의전화 : (02)245-0904, 248-0479, 246-6858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태징,요령,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5월 1일 ~ 5월 27일

■ 개강일시 : 1996년 5월 27일 오후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프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3층
전화 : 741 - 0495 ~ 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시는 불자님들께 그동안 이 자임 결혼 연구원을 뜨겁게 성원해 주신 사랑에 보답드리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96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본회비 20만원의 등록회비를 무료로 실시하고 사무실 전화요금과 상담비 명목으로 적은 비용으로 불자님 가정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좋은 만남 될때까지 책임감있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성혼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주선하여 계속 추진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초혼남녀 :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재혼남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학력 :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고졸은 특별상담)
(여) - 고졸 · 대졸이상
♥ 연령 : 남녀 (23세~ 70세 까지)
■ 초재혼 : 여(국졸,중졸만 - 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분 : 정신장애, 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행복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특별상담)
· 여 : 학력 제한 없음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254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연꽃향기따라 환희의 나라로

불교문화대제전

"찬란한 우리문화 그 뿌리는 불교정신에 있습니다"

1600년의 숨결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불교
생활속에 함께하는 불교, 곳곳에 계시는 부처님과 만나는 곳 - 불교문화대제전

● 행사내용

문 화 관 (불교문화와 역사 체험의 장)		생 활 관 (실생활의 관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용의 장)	
역사 · 유품관	한국불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당대 큰 스님들의 유품전시	산업관	컴퓨터, 섬유관, 체인스토어쇼관, 자동차 · 레저용품전시관
미술관	불교미술인들의 초대전	농산물관	각 지방 특산물 전시 · 판매
종단관	한국불교 30여개 종단의 역사와 현황	EVENT	
영상관	불교다큐멘터리, 영화상영	●불교음악의 대향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부처님께 올리는 차공양 ●전국의 신도가 함께 이루는 사경정진대법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시뮬레이션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마당	
공예품관 및 세계불교상품관	불교공예품, 불교용품의 전시, 세계불교국의 고유문화소개		
사찰음식관	사찰고유의 전래음식의 제작 · 시연		

"깨달음의 사회화"를
이루어 가는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1996. 5. 23 (목) ~ 6. 1 (토)
여의도광장

● 주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 불교텔레비전
● 후원: 문화체육부/조선일보사

● 불교문화대제전은 맑은 신심과 알음알이를 펼쳐보일 젊은 불자들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로 동참할 개인 및 단체는 불교텔레비전(btn) 기획홍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270-3342~8 / FAX. 02-3270-3498